

碩 士 學 位 論 文

皮膚健康管理에 대한
知識 및 行爲에 관한 研究
- 濟州地域을 中心으로 -

淑明女子大學校 遠隔大學院

香粧美容 專攻

김 나 은

碩 士 學 位 論 文

皮膚健康管理에 대한
知識 및 行爲에 관한 研究
- 濟州地域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金周德

이 論文을 香粧學 碩士 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6月 日

淑明女子大學校 遠隔大學院

香粧美容 專攻

김 나 은

김나은의 香粧學 碩士學位 請求 論文을 認准함.

皮膚 健康管理에 대한 知識 및 行爲에 관한 研究

- 濟州地域을 中心으로 -

2007年 6月 日

심사위원장

서명/인

위 원

서명/인

위 원

서명/인

淑明女子大學校 遠隔大學院

목 차

논문개요.....	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문제.....	3
II. 이론적 배경.....	4
1. 건강한 피부의 의미.....	4
2.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습관.....	6
3. 피부의 특성과 유형.....	8
4. 피부건강관리 방법.....	12
5. 피부건강관리 현황.....	21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27
1. 연구대상 및 방법.....	27
2. 연구 도구 및 내용.....	28
IV. 연구 결과 및 해석.....	29
1.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29
2.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31
3. 화장품 사용 실태.....	36
4. 피부 관리 실태.....	53
5. 생활 습관.....	74

V. 결론 및 제언	94
1.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94
2. 연구의 시사점.....	96
3.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과제.....	97
 참고문헌	 98
 설문지	 100
 ABSTRACT	 108

표 목 차

<표 1> 측정 도구의 신뢰도.....	28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0
<표 3> 피부건강관리 대한 정보습득경로.....	32
<표 4>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수준.....	33
<표 5>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35
<표 6> 피부건강관리의 필요성.....	37
<표 7> 피부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	39
<표 8> 피부건강관리를 위한 화장품 사용여부.....	41
<표 9> 피부타입을 고려한 화장품 구입정도.....	43
<표 10> 기초화장품 선택이 피부관리에 미치는 영향.....	45
<표 11> 사용하는 화장품.....	46
<표 12> 화장품 부작용 경험.....	48
<표 13> 화장품 사용 전 제품설명서 숙지정도.....	50
<표 14> 연령별 화장품의 필요성.....	52
<표 15> 피부관리 경험.....	54
<표 16> 피부관리 경험이 없는 이유.....	55
<표 17> 이용하는 피부관리실.....	57
<표 18> 피부관리를 하는 이유.....	59
<표 19> 피부관리 횟수.....	61
<표 20> 피부관리 1회비용.....	63
<표 21> 피부관리를 위한 방법.....	65
<표 22> 피부관리 후 효과에 대한 만족도.....	67
<표 23>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이용하는 피부관리실의 형태.....	69
<표 24> 미용 성형 수술 의향.....	71
<표 25> 피부관리실에서의 발관리, 아로마관리에 대한 인식.....	73
<표 26> 흡연정도.....	76
<표 27> 흡연기간.....	77
<표 28> 흡연 후 피부건강을 위한 비타민 섭취정도.....	78
<표 29> 음주정도.....	79

<표 30> 음주량.....	81
<표 31> 음주 후 피부건강을 위한 수분섭취.....	83
<표 32> 피부관리를 위하여 선호하는 식품.....	85
<표 33> 피부 관리를 위한 규칙적인 취침.....	87
<표 34> 평소의 스트레스 정도.....	89
<표 35>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노력.....	90
<표 36> 건강을 위한 수영이나 조깅 등의 운동 정도.....	92

논문개요

본 연구는 제주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및 행위를 파악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피부건강관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20~6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요인,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행위에 관한 질문 크게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 실태를 살펴본 결과,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는 대중매체를 통해 얻는 여성이 45.1%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은 10.89(13점 만점)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여성은 84.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피부에서는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에 대해 관심을 갖는 여성이 30.4%로 가장 많았다.

둘째,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및 행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피부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여성이 73.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여성은 26.6%로 나타났다. 화장품 구입 시에는 평균이 3.69로 자신의 피부타입을 고려하였고, 기초화장품 선택이 피부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3.96으로 기초화장품 선택이 피부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화장품 부작용은 경험한 적이 없는 여성이 64.2%로, 경험한 적이 여성 35.8%보다 많았으며,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3.10으로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고 기능과 방법을 그다지 확인하지 않았다. 연령별 여러 종류의 화장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88로 높은 인식을 보였다.

셋째,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행위에 관련된 요인을 살펴본 결과, 피부관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여성은 49.9%를 차지하였으며,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48.3%로 가장 많았다. 피부관리는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하는 여성이 36.0%로 가장 많았고, 주 1회 피부관리를 하는 여성이 29.5%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관리 1회 시에는 1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여성이 39.8%로 가장 많았다. 피부관리를 위해서는 가벼운 마사지를 하는 여성이 48.3%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관리 후 효과에 대해서는 3.56으로 만족하였다. 피부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여성고객 위주 관리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6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미용성형수술은 할 의향이 없는 여성이 52.5%로, 의향이 있는 여성 47.5%보다 많았다. 피부관리실에서 발 관리, 아로마 관리 등과 같은 전문관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3.86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담배는 전혀 피우지 않는 여성이 87.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음주는 한 달에 1회 하는 여성이 26.9%로 가장 많았고, 음주 후에는 피부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인 여성이 32.2%로 가장 많았고, 피부관리를 위해서는 과일류를 선호하는 여성이 36.7%로 가장 많았다. 또한 피부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2.71로 그다지 규칙적으로 취침을 하고 기상하지 않았으며,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비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3.10으로 그다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고, 수영이나 조깅 등의 운동도 2.57로 그다지 하지 않았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문명의 급속한 발전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경제적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들은 신체 외적인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더 채우려 하고 있다. 특히 여성에게는 신체의 일부분인 피부의 건강이 다른 신체부위의 건강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 젊게, 더 탱탱하게, 더 날씬하게를 외치는 현대인들에게 동안, 얼짱, 몸짱이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썬열 신드롬이 인터넷을 달구기 시작하면서 맑고 투명한 피부가 부의 상징, 진짜 미인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다.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면서 피부 관리를 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피부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예방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피부관리를 받고 있다. 더 나아가 바르는 화장품에 개념을 넘어 주사가 아닌 바르는 보톡스, 먹을 수 있는 콜라겐 등 우리 실생활에서 건강한 피부를 위한 노력들이 다양화 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수록 많은 일부 검증되지 않은 피부건강 정보가 여과 없이 전해지고, 각종 피부질환들이 비전문가에 의해 다뤄짐으로써 제때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사전에 그 요인을 파악하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피부손상의 위험도 줄이고 피부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다.

인간의 피부는 전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손의 지문과 같이 사람마다 다른 특유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 유형을 분류하자면 피부의 수분량과, 유분량 즉 피지선과 한선의 기능에 따라 중성피부, 건성피부, 지성피부, 복합성, 민감성 피부의 5가지유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분류한 피부유형 중 가장 이상적인 피부인 중성피부는 모든 기능이 정상적이므로 이를 정상피부로 지칭한다. 피부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피부의 기능이 정상적인 중성피부를 지향한다.

일반적으로 피부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는 생리적 요인(피

부분비이상, 내분비이상, 대사활동이상, 순환계이상), 영양학적 요인(피부 세포의 영양결핍, 식습관), 외부 환경적 요인(자외선, 방사선, 오염된 공기, 바람, 기온변화, 저온과 고온, 건조 공기와 다습한 공기), 심리적 요인(스트레스), 생화학적 요인, 생활요인(수면부족, 피로, 다이어트, 운동부족), 잘못된 피부관리 요인(알칼리성 피부과용, 화장품 성분, 임신 및 출산) 등을 들 수가 있다(윤여정,1996).

건강하고 효율적인 피부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고급화, 전문화, 세분화된 정확한 지식이 요구되며 피부건강관리를 위한 행위를 형성 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도는 수리적 위치, 난류의 영향, 해양상의 섬이라는 이유로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는 등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이런 독특한 특성을 지닌 제주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및 행위를 파악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피부건강관리의 기초 자료를 만들고자한다.

2. 연구내용 및 문제

본 연구는 제주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피부 관련 특성에 따라 비교분석하여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및 행위를 파악하여 피부건강 유지, 개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연구문제1.

일반적 특성, 피부관련 특성, 건강 특성에 따른 피부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 실태를 알아본다.

연구문제2.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및 행위와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연구문제3.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행위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건강한 피부의 의미

인체에 대한 구조적 연구에서 피부는 인체의 단순한 ‘거죽’ 정도로만 여겨져서 흔히 그 존재가치가 경시되는 경향이 있으나 사실은 ‘피부’(Skin)라고 불리는 인체의 피막(Membrane)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체기관이다.¹⁾

피부는 인체를 구성하는 기관 중 가장 넓은 면적(1.5~2m²)을 차지하며 가장 겉면에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표피와 진피 및 피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부기관을 보호하며 이물질에 대한 방어, 보호물질의 분비, 체액의 보존, 체온조절, 비타민D 생산, 재생 및 분비물의 배출의 기능을 한다.²⁾

피부는 신체의 건강, 호르몬의 분비, 내장기관 등의 내적인 요소와 계절, 기후, 환경 등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Canizares, 1960).

그러므로 피부를 정상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도록 힘쓰면서 자신의 피부에 알맞은 피부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건강한 피부의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피부의 표면이 매끄럽다.

피부의 표면에는 모공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피부 모공의 폭·깊이·구멍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피부모공의 폭이 좁고 얇은 경우 우리의 눈에는 고운 피부로 보인다. 그러나 그 반대로 피부 모공의 폭이 넓고 깊으면 피부 능선의 높아짐이 눈에 띄어 피부의 표면은 감촉이 거칠고 윤기가 없어 거칠어 보인다. 연령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일수록 피부모공의 폭이 미세하고 나이가 들수록 거칠어지며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거칠다.

1) 윤여성, 「신피부관리학」, 가림, p.85.

2) 한국미용학회지, 여성들의 자아존중감과 피부관리습관에 따른 피부건강상태, 1992, 제4권 제1호, p.89. 재인용.

둘째, 피부 표면이 촉촉하고 윤택이 있다.

피부의 보습력은 건강한 피부의 한 조건이다. 수분이 없으면 피부의 표면은 거칠어진다. 피부가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표면에 있는 얇은 지방막에 의해서인데, 이것을 피지막이라고 한다. 이는 피부의 건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친수성이 있어, 수분을 끌어들이는다. 건강한 피부의 각질층은 약 15~21%의 수분을 항상 보유하고 있는데 이 수분에 의해 피부 표면이 촉촉하고 윤기 있는 상태로 유지된다.

셋째, 피부가 부드럽고 팽팽하며 탄력이 있다.

피부의 탄력성은 표피와 진피의 경계에 있는 과상형으로 맞물린 부분의 표피용기와 진피의 탄력섬유 등에 의해 유지된다. 연령 또는 자외선 등의 외부 자극의 영향을 받아 노화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탄력성이 줄어든다.

넷째, 피부의 혈액순환이 좋아 건강하게 보인다.

피부의 가장 표면에 있는 모세혈관에 있어서 일정한 양의 혈액순환의 속도가 지속될 때 피부는血色이 좋아지고, 생기가 있으며, 건강미가 있다.

다섯째, 피부색이 아름답다.

피부의 색소분포 정도에 따라 과색소 피부와 색소 결핍 피부로 분류한다. 과색소 피부는 비정상적인 색소의 침착을 야기 시킨 상태로 주근깨, 기미, 점, 검버섯 등이 있다.

이들 과색소 피부의 증상과 특성이 다르지만 유전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생활환경에서 비롯된 각종 자극, 즉 햇빛과 스트레스 등이 주원인이다. 색소결핍 피부는 비정상적인 색소의 결핍 증상이다. 일반적으로 유전적 경향이 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멜라닌 색소 파괴로 인한 색소 결핍이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색소의 문제없이 아름다운 피부색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햇빛의 차단과 재생력 증가에 노력해야 한다.³⁾

이처럼 건강한 피부도 끊임없이 외계의 자극(인체생리학적 요인, 영양과 다이어트, 자외선, 정신·심리적 요인, 피부 관리문제,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잠깐의 부주의로 거칠어지거나 손상되어진다. 그러므로 피부를 정상

3) 김종대 외 2명, 「피부관리학」, 고문사, 1994, pp.10~11.

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 각자의 끊임없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2.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습관

Haggerty(1977)은 미국에 있어 주요 질병들은 환경의 저해요인과 식습관, 음주, 흡연, 스트레스, 약물복용 등이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의료는 실상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건강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생활습관이 중요하다고 했다. 피부는 신체의 겉 부분이므로 환경의 영향에 민감하며 생활습관에 따라 피부의 상태가 달라진다.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습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부의 청결을 유지해야한다. 피부표면은 유화(乳化)된 지방막으로 싸여 있어서 더러워지기 쉽다. 또 크림을 바르면 그 유분(油分) 때문에 먼지가 묻기 쉽고 외출 후에 집에 돌아와서 화장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먼지 때문에 피부가 자극을 받아 거칠어지고 불쾌해 진다(윤철진, 1992). 그러므로 아침, 저녁으로 오래된 각질, 더러운 오염물질, 메이크업 등의 잔여물을 제거하여 피부가 원활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세안에 신경을 쓰도록 하며 청결을 유지한다(김중대 외, 1996). 피부의 청결에는 냉수보다 온수로 씻는 것이 좋고, 비누를 사용하면 비누 고유의 세척 기능 때문에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는데 알칼리성이 너무 강하거나 충분히 씻어 내지 않아 피부표면에 남게 되면 표피의 산성균형이 무너져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피부표면의 지방막이 전부 제거되고 피부가 거칠어질 수 있으므로 세안 후에 크림을 발라 피부를 보호해야한다.

둘째,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수면은 피부조직을 회복시켜주므로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수면부족으로 피부에 초래되는 부정적인 영향은 피부 세포의 신진대사 활동 저하로 세포의 영양공급 및 대사부산물 배설이 저하되고, 건강한 피부톤 상실, 피부 건조화 및 탄력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피부 늘어짐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피부 세포의 긴장도가 높아져 여러 가지 기능 장애를 일으키기 쉽다.⁴⁾

셋째, 영양섭취의 균형을 유지한다. 신체의 건강이 피부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람에 따라 제각기 나름대로의 식습관을 갖고 있다. 과식하거나 적게 먹거나, 규칙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식사 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의 종류, 지나치게 맵게 먹거나 짜게 먹거나 하는 등등이 모두 개인적인 식습관의 차이에서 나오게 된다. 이러한 식습관은 영양학적인 영향과 직결되어 인체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또 피부에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가령 맵고 짠 자극성이 강한 음식이나 커피 등과 같은 중추신경 흥분성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피지의 분비량이 증가한다든지, 편식하는 습관 때문에 고르게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특정 비타민의 결핍 현상으로 피부보습 기능이 저하 된다거나 또는 피부색소 침착증의 촉진 등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⁵⁾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 영양섭취에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 사람의 혈액은 대개 약알칼리성이므로 항상 적당한 알칼리도를 유지해야한다(김종대 외, 1996). 고기, 쌀 등의 혈액을 산성에 가깝도록 하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는 동시에 야채, 과일 등의 혈액을 알칼리성에 가깝도록 하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김병우, 1994).

넷째,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운동이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지는 않으나 운동으로 발달된 근육조직은 피부 층의 탄력을 견고하게 해준다. 실제로 적절한 운동을 통하여 튼튼한 근육조직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피부의 늘어짐 현상과 같은 것이 다른 사람들 보다 훨씬 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⁶⁾

다섯째, 흡연과 음주를 삼간다. 피부는 흡연에 직접적이면서 강하게 노출이 되며 혈액을 통하여 피부의 독성물질이 닿음으로서 영향을 받는다. 여성흡연자의 75%가 피부 표면의 수분이 부족하며 햇빛의 창백한 안색과 깊은 주름과 주름 사이의 피부가 두꺼운 형태로 특징 지워지는 ‘흡연

4) 윤여성, 「신피부관리학」, 가림, 1995, p.293.

5) 상계서, pp.266~267.

6) 상계서, p.299.

피부'(Cigarette Skin)를 갖고 있다(Ippen, 1965).

대량의 알코올은 체수분의 균형을 깨뜨리며 수분을 조직에서 세포 밖으로 끌어내므로(오형석, 1968) 알코올의 과다섭취는 피부를 거칠게 하고 탄력성을 저하시키며 노화를 촉진하기도 한다(윤여성, 1995).

고혜정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흡연시작 연령이 빠를수록, 흡연기간이 길수록, 흡연량이 많을수록 피부의 수분이 낮게 나타나며 음주를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피부 수분량이 낮게 나타났다. 피부의 낮은 수분량은 건조피부주름의 원인이 되며 피부노화를 촉진시킨다.

이외에도 피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자외선, 무리한 다이어트, 잘못된 피부 관리 습관들이 있다.

3. 피부의 특성과 유형

1) 연령별 피부특징과 관리

피부는 인체의 외부표면을 덮고 있는 조직으로서, 물리·화학적으로 외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전신의 대사에 필요한 생화학적 기능을 영위하는, 생명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이다(윤여성, 1996). 피부의 방어기능은 주로 최외층인 각질층이 수행하고 있으며(Jacibi, 1599; Lewis&wheeler, 1967), 피부의 지방막이 보조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각질층에서 기본적인 장벽기능(Barrier)외에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이다(Tagami, 1995).

① 10대

피부 자체의 움직임은 상당히 활발하지만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신진대사가 불안정한 상태이며, 피지 분비량이 왕성하여 여드름, 뽀루지 등 피부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피부의 끈적임, 번들거림이 심하다.

이 시기의 피부 관리는 청결한 세안으로 비누 세안을 하루에 2회 이상 실시하며 세안 후 스킨을 발라 피부결을 정돈해 준다.

② 20~30대

생리 리듬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성장한 상태이나 사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업무의 스트레스, 잦은 음주, 흡연, 불규칙한 습관과 수면부족으로 인하여 피부의 상태가 많이 나빠지게 된다.

또한 건강에 따라 안정이 쉽게 깨져 각질이 일어나기도 하며, 트러블이 생기기도 한다. 이 시기의 피부관리법은 다양한 활동과 생활 조건의 불균형으로 피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3회 정도 영양 마사지를 하여 피부의 신진대사를 회복시켜 준다.

③ 40~50대 중년

중년기는 생의 목표가 달성되어 성취감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자녀양육의 책임도 끝나고 사회·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기실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이다. 또한 역할 변화에 따른 재적응과 신체·생리적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해야하는 시기이며, 한편 자녀들을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독립 시켜야하는 시기이다(Janer,1973).

여성의 중년기는 자신의 내부 및 외부로부터 오는 변화에 대해 적응해야 할 부담감이 있고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신체적 변화로 일어나는 폐경과 노화현상과 같은 신체적 변화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시기다. 또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중년은 성적매력도 잃어버리게 되므로, 여러 가지 두려움을 안겨준다. Kaluger(1979)에 의하면 중년 여성이 경험하는 신체적 변화 중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이며 매력과 젊음의 상실, 노년기로의 접근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피부는 점차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며 표피, 진피의 변화로 탄력성을 잃게 되며, 피하지방이 감소하고 잔주름이 늘며, 색소가 침착된다(유정숙과 김금순,1998).

일반적으로 볼 때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성이 없으며 주름이 많고 불규칙한 색소 침착과 함께 증식성 병변이 나타나면 피부노화라 할 수 있다. 피부미용은 심신의 건강과 영향, 적당한 운동,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모든 일을 긍정적인 사고로 받아들이고 불평불만이 없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부노화는 빨라진다고 한다(김병우,1998).

일단 노화되어 발생한 잔주름이나 색소침착을 회복하는 방법도 최근에 널리 연구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레티산과 화학 박피술을 들 수 있다. 레

틴산은 교원질의 생성을 촉진하고 교원질을 분해하는 교원질 분해효소를 억제하여 주름진 피부를 다시 팽팽하게 펴주는 역할을 한다. 박피술은 피부를 탈락시키기 때문에 중년여성의 많은 불규칙한 표피 색소침착을 효과적으로 제거 할 수 있다(최성우, 1992).

2) 피부타입별 피부특징

피부타입은 개인특유의 독특한 성질을 띄우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분하면 피부의 유분량과 수분량에 의해 정상피부, 건성피부, 지성피부, 복합성, 민감성피부의 5가지 타입으로 크게 분류한다.

① 정상피부(Normal skin)

정상피부란 피부조직의 모든 상태 뿐 만 아니라 피부의 생리기능들이 모두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피부이다. 실제로 정상피부는 찾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에 속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정상피부를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것은 세포가 계속적으로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아 효율적으로 독소를 제거하고 증식하지만, 이러한 피부의 신진대사 기능이 평생토록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연령이나, 계절, 환경, 화장품 선택 등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

정상피부의 특징으로는 피부결이 섬세하고 윤기가 있으며, 모공이 작고, 탄력과 혈색이 좋다. 또한 세안 후 피부 당김이 없고 촉촉하며, 기미·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이 없다.

② 건성피부(Dry skin)

피부의 수분 공급 기능과 피지 분비 기능의 균형이 유지되지 못하는 피부 유형을 일반적으로 건성피부라고 한다. ⁸⁾피부의 분비가 적어 피부 표면이 건조하고 윤기가 없는데 이처럼 유분이 부족한 건성피부를 유분부족 건성피부(Oil dry skin)이라한다. 또 땀의 분비가 부족하여 수분부족으로

7) 김현주 외, 「에스테틱 살롱 트리트먼트」, 도서출판 정담, 2000, p.94.

8) 상계서, p.95.

생긴 건성피부를 수분부족 건성피부(Moisture dry skin)이라 한다. 건성 피부는 피지와 수분의 균형이 정상적이지 못하면서 생기는 특히 살결이 얇은 사람은 피부의 탄력이 부족하고 잔주름이 많이 생기게 된다.⁹⁾

건성피부는 나이, 계절, 환경에 따라 더욱 심하게 되므로 피부마찰로 피부말초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피지선의 활동도 도와주어 충분한 표면 지방막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 건성피부는 피부병 중에서 세균감염이나 접촉성 피부염에 잘 걸리는 영향이 있어 항상 청결을 유지하면서 동식물의 기름기와 보습제가 들어있는 영양화장품의 사용이 필요하다.¹⁰⁾

③ 지성피부(Oily skin)

피지선의 기능이 필요 이상으로 촉진되어 정상보다 과다한 피지가 분비됨으로써 피부표면이 늘 번들거리며 모공은 넓어지고 각질층은 두꺼워져 피부가 두꺼워 보이는 피부를 지성피부라고 한다. 그리고 피지선으로부터 분비되는 과다한 피지의 양이 모공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축적됨으로써 여드름과 같은 피부 병변의 원인이 된다.¹¹⁾

지성피부는 각질층이 두께가 두껍고, 피부가 거칠며 모공이 넓다. 또한 T존부위에 피지가 쌓여 블랙헤드가 보이며, 화장이 잘 지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거무칙칙해지는 등 피부가 탁해 보인다.

지성피부가 생기는 원인은 남성호르몬과 여성호르몬의 기능이 활발해져 생기기도 하지만 비타민 B1, B6과 비타민 C의 부족, 탄수화물 과잉섭취, 향신료, 기호식품 선호 등에서 올 수 있다. 지성피부의 대책으로는 보습제를 쓰면서 수렴성 화장품을 사용하고 또 피지 제거를 위한 세안을 자주 하는 등 피부 청결에 유의해야한다.¹²⁾

④ 복합성피부(Combination skin)

피지의 분비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2가지 이상의 피부성질이 함께

9) 최미숙, “30대 여성의 피부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고주파를 이용한 개선효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06.

10) 국홍일, 「고운피부젊은피부」, 도서출판 아침나라, 1999.

11) 김현주외, 「에스테틱 살롱 트리트먼트」, 도서출판 정담, 2000, p.97.

12) 최미숙, “30대 여성의 피부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고주파를 이용한 개선효과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06.

존재한다. 즉 피부에 건성과 지성이 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T-Zone은 지성으로 모공이 크며 기름분비가 많아 여드름성 요소를 동반한다. 또한 볼 부위와 눈 주위의 근육은 피지의 분비가 적고 보습함유량이 적어서 세안 후 피부가 당겨지는 느낌이 있으며 잔주름이 형성된다. 화장품의 성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므로 선택에 유의해야한다. 복합성 피부는 민감성 피부의 상태가 되기도 하며, 관리법으로는 T-Zone부분의 세안 시 청결하게 해야 하며, T-Zone부분보다 다른 부위에 정기적인 마사지를 한다. 또한 기초 화장품의 선택 시에 2가지 피부 타입의 화장품을 피부상태에 따라 사용한다.¹³⁾

⑤ 민감성피부(Sensitive skin)

민감 피부는 화학적, 외부 환경적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계절의 변화, 정신적 스트레스, 수면부족, 호르몬제 등의 의약품, 화장품에 의한 접촉성 등 민감 피부의 원인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민감성 피부의 특징은 피부 조직이 섬세하고 얇고, 피부 표면이 투명하다. 또한 모공이 거의 보이지 않고 피부 입자가 섬세하고 조밀하며, 피지 분비량이 고르지 못한 복합성 피부 상태의 특징을 보인다. 표정에 의한 피부 주름이 일시적으로 잘 나타나며 추운 곳에서 갑자기 따뜻한 곳으로 들어오면 붉어지고 가렵다. 또한, 모세혈관이 피부 표면에 잘 드러나 보이며 피부 색소 침착 현상이 쉽게 나타난다. 약품이나 화장품에 민감한 반응으로 나타내어 피부 부작용을 일으킨다. 피부 건조화가 쉽게 이루어져 피부 당김이 심하다.¹⁴⁾

4. 피부건강관리 방법

1) 피부관리의 의미

피부관리(피부미용)는 에스테틱(esthetic), 코스메틱(cosmetic), 스킨케어(skin care) 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13) 김봉인외 4인, 「피부과학」, 형설출판사, 1999, p.150.

14) 이영하, “20~30대 직장 남성의 피부건강지식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5.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 ‘esthetic’은 ‘심미적인’, ‘미학’의 뜻을 가지고 있는 피부미용의 의미로 사용 된다. 그리고 피부미용사는 ‘esthetician’이라고 부른다.

cosmetic은 화장품, 피부미용의 의미로 통용되는데 우주(cosmos)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Kosmein’에서 유래되었다. 그 개념은 우주의 질서로, 아름답게 조화된 질서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의 미와 건강을 신체관리를 통해 실천하는 것이다.¹⁵⁾

피부관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피부를 청결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피부는 온몸을 덮고 있는 중요한 기관으로 내장을 보호하고 이를 잘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물리적 · 화학적 자극이나 박테리아 또는 세균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피부는 연령, 계절, 환경, 생활환경 등에 의해 변화되어 간다. 이러한 미용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피부의 기능이 원활해지도록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등을 이용하여 기술적으로 피부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 피부미용이다.

단순히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 정신적으로 새로운 인간상의 회복을 위한 모색이라고 볼 수 있다. 피부미용관리를 통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과 피부노화를 지연시키며 동시에 고도의 산업화로 인하여 대중화된 물질 위주의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상실된 인간에게 긍정적인 자아인식과 자신감을 갖게 한다.¹⁶⁾

넓은 의미의 피부관리는 전문관리실에서 행해지는 전문관리(shop care) 뿐 아니라 고객이 가정에서 행하는 개인관리(home care)도 포함하게 되는데, 고객의 개인 관리에는 전문 피부관리사가 고객에게 정확한 피부미용지식을 전달하고, 가정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올바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포함하게 된다.¹⁷⁾

피부관리는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일시적 관리로써 효과를 본다고 하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15) 김춘자, 피부미용학, 훈민사, 2000, p.13.

16) 상계서, p.13.

17) 김기연외 4명, “피부관리학 I”, 수문사, 1999, p.124.

2) 피부건강관리를 위한 방법

① 화장품 사용

화장품은 사람의 몸을 청결히 하고 아름답게 하며, 더욱 매력적으로 변화시켜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 또는 피부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신체에 바르거나 뿌리거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적은 것을 말한다. 즉 화장품은 각종 성분들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신체에 바르거나, 뿌려서 신체 및 모발을 청결히 하고 또한 건강하게 하여 아름다움을 유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⁸⁾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 또는 미화하고 피부 또는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도찰(塗擦), 살포(撒布),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용목적 이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약리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은 법적으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과 달라서 “인체에 대한 약리적인 효능·효과가 비교적 적은 것”을 말하며, 크림을 발라서 여드름이 치료된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의약품은 사용대상이 정상적이 아닌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며, 의약외품과 화장품은 정상인을 상대로 하는 물품이다. 정상인이 사용하는 물품 중에서 어느 정도의 약리적인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물품은 의약외품이라 하며, 그 예로는 발모제,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체취방지제 및 치약 등이 있다. 의약부외품의 경우도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② 기능성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이라 함은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없게 하여 피부의

18) 하병조, 「화장품학」, 수문사, 1999, p.20.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강한 햇빛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그리고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말한다(화장품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기능성화장품의 출시배경은 90년대에 들어서며 정보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소비자의 가치관도 다양화되고 개성화가 진행되면서, 화장품업계에서도 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Needs)에 부응코자 다양한 상품의 개발과 많은 기능성을 갖는 브랜드(Brand)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9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이제 단순한 피부보호기능의 일반화장품 시장만으로는 매출액증대의 한계점에 이르렀고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소비자계층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려는 화장품업체 간의 경쟁은 더욱 격화되었으며 최근에는 그간의 약사법에서 통합 관리되어 오던 화장품 분야가 화장품 법으로 별도입법(2000. 7. 1시행)되어 이 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으로 승인을 얻어 매출액 증대를 기하려는 화장품업체간의 시장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더욱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③ 먹는 화장품

화장품이란 약사법에서 인체를 청결 또는 미화하기 위하여 도찰(塗擦)·살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적은 것을 말한다. 먹는 화장품은 이러한 바르는 화장품의 개념을 식품으로 도입한 것이다.

몸에 좋은 비타민이나 항산화제를 첨가하여 신체내부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여 피부를 좋게 만드는 목적이 있다.

먹는 화장품의 종류에는 천연비타민 항산화제품, 세라마이드 첨가 화장품, 특수 단백질 식품 등이 있다.

천연비타민 항산화제품은 소나무껍질 내부의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수행하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bioflavonoid) 성분이 다량 첨가된 제품으로 노화방지, 건강증진, 성인병 방지, 신경 혈관계 증상 개선, 피부보호, 알레르기, 아토피성 질환개선의 효능이 있다. 세라마이드 첨가 화장품은 구약나물 지하경(곤약의 원료)추출물을 이용한 화장품으로 피부의 보습성 증대,

미백효과가 있다.

특수 단백질 제품, 콜라겐은 신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70%차지하고 있으며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여 안정화 시키며 부족하면 골다공증, 피부노화를 유발한다.

먹는 화장품의 장점으로는 화장품을 피부에 바르기 전 체내상태를 최적화 시켜 화장품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법적인문제와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

④ 기능성식품

식품의 기능에는 신체구성성분과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1차적 영양기능, 식품의 기호성에 관여하는 2차적 감각기능, 다양한 생리활성에 관여하는 3차적 생리조절기능 등이 있다.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식품 성분 중 인체에 대해 직접적인 생체조절기능을 지닌 것이 있음이 밝혀져 3차 기능에 관심이 높아졌고 "기능성식품(Functional Food)"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이 용어는 대중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나 어떤 나라에도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식품의 발달 과정에서 생성된 용어다.

골드베르그는 “기능성식품”이란 영양 가치 외에도 개인의 건강이나 신체적 활동, 정신 상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이나 식품 소재로 정의했다.

영양소를 공급하는 이상으로 특별하게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오는 기능, 생체방어, 질병의 예방 및 회복, 신체 리듬의 조절, 노화억제 등 생명활동을 위한 조절기능을 통해 신체 기능을 변화시키고 건강에 유익한 기능을 가진 식품을 말한다. 즉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에서 유도된 성분으로 일상의 식이로 소비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섭취 했을 때 특별한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능성식품이란 어떤 식품이 기능성 소재를 함유하도록 특수 제조된 식품을 말한다. 기능성 소재란 특정한 기능 즉 건강과 관련된 기능을 갖는 물질로서 혈액 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거나 항산화 효과, 정장기능 등이 있어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물질이다. 이러한 작용을 하는 물질로는 식이섬유소, 올리고당, 키틴이나 키토산, DHA 등이 있다. 기능성식품으로는 기능성 쌀, 기능성음료 등이 있다.

⑤ 아로마테라피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y)는 좋은 향기를 의미하는 ‘아로마(Aroma)’와 치유법을 의미하는 ‘테라피(Therapy)’의 합성어로 허브나 식물의 꽃, 잎, 줄기, 뿌리 등에서 추출한 휘발성 정유인 에센셜 오일(Essential Oil)을 이용한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요법이다.

아로마테라피는 전인적 요법(Holistic Therapy)으로 정신적, 신체적, 감정적, 영적인 차원에서 치유, 개선의 효과를 가져오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심신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효과가 우선한다.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활용법은 다양하나 크게 건강과 미용을 위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고 구체적인 활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로마 마사지법

아로마 마사지를 시행할 때에는 마사지를 하는 목적에 맞는 에센셜 오일을 선택하여 베이스 오일에 알맞은 농도로 희석하여 원하는 부위에 도포하여 부드럽게 신체의 흐름에 맞추어 마사지한다. 아로마 마사지사 에센셜 오일이 피부에 흡수되어 내부 장기에 영향을 주고, 향기는 후각신경을 통하여 정신적 영향을 주어 후각효과까지 가지게 된다. 에센셜 오일을 신체 전체에 확산되는 데는 약 20여분쯤 걸린다. 의학적으로 아로마 마사지는 신경성 질환을 비롯하여 암이나 성인병을 예방하고 혈액순환과 피부재생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세포조직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여 면역기능을 향상시킨다. 특히 마사지는 스킨십을 통해 신체의 질환을 치유하는 동시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도 좋다.

아로마 마사지에서 중요한 것은 마사지의 속도이다. 아로마 마사지는 근육자체에 힘을 가하기보다 오일을 흡수시키는 것이므로 아로마 오일이 피부에 제대로 흡수 되도록 ‘천천히’ 마사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흡입법(Inhalation)

흡입법은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들 중 하나이다. 코로 직접 아로마 향기를 들이마시는 흡입법은 호흡기 감염, 부비강염, 감기, 천식, 인후염, 기침, 두통, 편두통, 불면증, 여드름 등에 효과적이다.

습식 흡입법은 먼저 큰 대야에 2리터 정도의 온수를 담아서 8~10방울 정도의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린 후 수건을 이용하여 향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여 입과 코로 향기를 들이 마신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그 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건식 흡입법은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수건이나 티슈에 2~3방울 떨어뜨려 흡입하는 것으로 사무실, 길거리 등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활용 할 수 있다. 아로마 목걸이의 형태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셋째, 확산법(Vaporization)

아로마 램프나 오일버너, 아로마 디퓨저(Diffuser:훈증기)를 이용하여 아로마 에센셜 오일 입자를 공기 중에 발산시키는 방법으로 특히 불면증, 우울증, 생리 전 긴장 증후군 등에 효과적이며 감기, 신경안정, 두뇌활동 촉진, 기분전환, 식욕조절, 살충, 방충효과에도 활용된다.

아로마 램프 위에 따뜻한 물을 담은 후 아로마 에센셜 오일 5~6방울을 그 위에 떨어뜨려 촛불이나 전구를 가열하여 물이 서서히 증발 하면서 공기 중에 향기 입자가 확산된다. 또 너무 뜨거워도 치료효과가 줄어들므로 완전히 증발되면 램프를 꺼 두도록 한다. 램프를 끈 후에도 수 시간 동안 향기가 지속된다.

아로마 양초, 아로마 방향 스프레이 등도 사용되며, 호흡기관의 감염을 예방해주며, 실내에 기분 좋은 향이 퍼지게 함으로써 실내공기를 정화하고 나쁜 냄새들을 제거해 준다.

넷째, 목욕법(Bath)

욕조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리고 전신욕, 반신욕, 족욕과 같이 수욕 등 아로마 목욕을 한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 입자는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어 전신을 순환하며 각 조직과 장기에 치료효과를 나타내며 동시에 호흡기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면역기능을 향상시켜주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어 준다.

전신욕은 피부질환, 신경질환, 근육이완, 피로회복, 불면증, 관절염,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된다. 욕조에 약간 뜨거운 물 (38~40°C)을 채운 후 선택한 에센셜 오일을 8~10방울 정도 떨어뜨린 후 오일을 물에 잘 섞이도록 한다. 이때 오일이 물과 잘 섞이도록 도와주는 배스솔트(Bath Salt), 우유, 식초, 꿀 등에 에센셜 오일을 섞어서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목욕시간은 20분 이상하도록 하며, 아침에는 약간 뜨거운 물이 좋으며, 잠들기 전에는 조금 미지근한 물이 좋다. 목욕 후 피부에 남아있는 에센셜 오일은 수건으로 닦아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건조시키도록 한다.

반신욕은 38~40°C의 약간 뜨거운 물에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

린 후 심장 아래 부분까지 몸을 담그고 있으면 서서히 땀이 나기 시작한다.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 오랜 시간 목욕을 즐길 수 있어 냉증, 몸의 부종, 초기감기 등에 효과가 있다.

수욕과 족욕은 손발이 차거나, 피부질환, 무좀에 효과적이다. 40~41°C 정도의 뜨거운 물을 대야에 준비하여 에센셜 오일을 3~5방울 떨어뜨린 후 손이나 발을 담그고 15~20분 가량 둔다. 뜨거운 물을 미리 옆에다 준비해두었다가 미지근해지면 물을 부어 따뜻하게 한다. 몸 전체가 따뜻해지며 물기를 닦는다.

좌욕은 부인과 질환, 생리불순, 생리통, 출산 후 빠른 회복, 비뇨생식기 질환이나 항문질환에 효과가 좋다. 욕조나 큰 대야에 38~39°C 정도의 물을 앉았을 때 배꼽아래까지 오게 한다. 에센셜 오일 5방울 정도를 떨어뜨린 후 10분 이상 하반신이 따뜻해질 때까지 좌욕한다.

다섯째, 습포법(Compress)

습포법은 증세에 따라 온습포와 냉습포를 달리하는데 전신마사지가 어렵거나, 피부염증, 강한 통증이 있는 부분, 눈 주위, 배 주변 등 마사지하기 어려운 민감한 부분에는 아로마 습포법이 적합하다. 갑자기 발이 빠거나 오래되지 않은 통증, 열이 나는 부위, 부종이 있을 때에는 냉습포를, 어깨 결림, 생리통, 신경통, 류마티스와 관절염 등엔 온습포가 효과적이다. 필요에 따라서 따뜻한 물이나 얼음물에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리고 타월을 적셔서 짠 후 통증이 있는 부위에 었는다.

여섯째, 원액사용법(Neat application)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직접 피부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희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으나 라벤더(Lavender) 같은 경우 화상이나 상처부위, 벌레 물린 데에 국소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티트리(Tea tree)는 여드름, 부스럼, 벌레 물린 데에 부분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크림, 로션 등에 희석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일곱째, 복용법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고농축이므로 가정에서 직접 복용을 권하지 않는다.¹⁹⁾ 그러나 허브차나 향신료 등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여 전반적인 건강

19) Julia Lawless, 「아로마 에센셜 오일 백과사전」, 현문사, p.41.

에 도움을 주는 경우이다.

⑥ 경락

인체내부의 경맥과 락맥을 총칭한 것으로, 무릇 직행하는 간선을 모두 경맥이라 하고, 경맥에서 나와 신체의 각 부분으로 그물처럼 연결된 것을 락맥이라 한다. 경락은 전신의 기혈을 운행하고 장부지절을 연결하며, 상하내외를 소통시키고 신체의 각 부분을 조절하는 통로이다. 경락의 계통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인체는 하나의 유기적인 정체가 된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경락을 보면 신경, 혈관, 내분비 등의 구조와 그 일부기능을 포괄하게 된다. 경락의 연결 체계는 우리 몸 속의 장부와 겉의 피부, 장부와 장부 사이, 몸의 위와 아래, 몸의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한다. 몸 속에서 일어난 변화가 외부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경락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장에 이상이 있으면 함곡(合谷: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갈라지기 전, 살이 모여 있는 부위)이란 경혈에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함곡과 대장이 서로 경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맥은 기본적인 것이 12개인데, 몸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12개씩 있으니 12쌍인 셈이다. 이것을 12정경(正經)이라고 한다. 또 기경(奇經)8맥이란 것이 있는데, 정경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좀 기이하게 흐르는 8개의 경맥이란 뜻이다. 12정경과 기경 8맥의 독맥, 임맥을 합쳐 14경맥이라고 하는데, 14경맥은 임상에서 많이 응용되는 경맥이며, 나머지 6개의 기경맥은 별로 많이 응용되지 않는다.

경혈은 이 14경락 상에 있으며 365혈이 있다. 이 경락 내에서 에너지가 원만히 흐르고 있다면 건강하고, 어느 장부(臟腑)에 이상이 있으며 즉시 그 에너지(氣)의 흐름이 정체(停滯)되게 된다. 이와 같이 기(氣), 즉 에너지 흐름이 정체되면 그 이상이 경락 상에 나타나게 되며 그 부분을 경혈이라 한다.

이 경락, 경혈에 지압을 하게 되면 기(氣)의 넘치고 부족하게 되는 것을 조절하게 되고, 또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주어 내장기능이 다시 원활하게 해 주어서 몸의 이상이나 병이 치료된다는 것이다.

5. 피부건강관리 현황

1) 국내 피부관리 산업의 현황

최근 피부관리 산업은 단순한 피부 관리의 개념에서 벗어나 스트레스관리, 영양관리, 건강관리 등을 통한 종합건강관리, 예방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1981년 피부 관리사가 국내에 처음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30만 여명의 피부관리사와 148,000여개의 피부관리실이 전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02년 말을 기준으로 대한 미용사회가 조사한 전국의 일정규모를 갖춘 피부미용실은 총 2,163개가 있는 상황이다.²⁰⁾

초창기의 피부 관리실은 얼굴을 관리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세분화, 전문화, 고급화가 강조되는 다양한 형태로 바뀌었다. 바쁜 현대인의 취향에 맞는 대중적인 shop의 형태에서부터 아로마 관리, 가슴 관리전용, 발 관리 전용, 남성 피부 전용, 비만, 셀프관리실 등 세분화된 관리실 형태에서 대체요법이 접목되어 전문성을 강조한 shop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소득향상과 빠른 해외정보의 유입, 인식의 변화 등으로 국내의 피부관리 산업은 서비스 산업의 하나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 2002년 3월 7일 일본 표준 산업 분류표에 에스테틱업이 독립된 형태로 기재됨으로서 산업으로서의 정식지위를 획득하였다.²¹⁾ 에스테틱이 도입된 후 30년 동안 3조원 이상의 시장규모를 형성하며 성장해 온 일본 에스테틱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에스테틱 시장도 더 발전하고 설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각 언론 매체에서도 21세기 유망직종으로 피부 관리사를 손꼽고 있다.²²⁾

1990년대 초반 사설학원의 미용중심의 과정에서 벗어나 전문대학 피부미용과가 개설되면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자리 잡게 되었고 전문적인 피부 관리사를 배출하게 되었다. 그 후 199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

20) 장업신보, 2003년1월28일자.

21) 뉴 에스테틱, 한국피부관리사협회, 2003, vol. 58.

22) 중앙일보, 2004년7월6일자.

면서 피부미용위원회 주관의 피부미용 민간인증자격제도의 시행을 통해 국가공인자격증 신설 노력이 다각화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얼굴 관리에서 벗어나 특수 관리, 비만을 접목시키기 시작하여 전신건강의 위주로 관리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2000년도 이후는 홀리스틱(Holistic)관리로 얼굴과 몸과 정신이 건강해지는 관리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건강하게 살자는 웰빙(Well-being)트렌드와 대체요법이 성행하고 있다.

피부관리 산업의 계속적인 발전과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당당한 지위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① 피부 관리 자격증과 전문성의 필요성

피부관리사로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재의 제도 하에서 적법하려면 피부관리와는 상관없는 헤어과목 위주의 필기와 실기 시험을 치뤄야 하는 미용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불합리함을 안고 있다. 그래서 많은 피부관리실이 화장품 소매업이나 기타 다른 서비스 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한국피부미용관리사 협회는 피부관리사자격분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기득권을 쥐고 있는 대한 미용사회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부관리사 자격증이 분리 시행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자격 양산을 막아 제대로 된 피부관리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데 있다. 피부관리사만을 위한 자격증이 없는 현 상황에서 화장품 전문점, 방문판매업자, 병원, 미용실, 체형관리실, 한방병원, 심지어 공중목욕탕에서조차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며 영업을 하고 있으며, 홈케어라는 이름으로 단기간에 걸쳐 마사지 기법만을 익혀 가정을 방문하여 피부관리를 하는 인원 역시 수없이 많은 실정이다. 화장품 전문점이나 방문 판매업에서는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서비스 개념으로 무료로 마사지를 해주고 있으며, 체형관리실이나 미용실에서는 수익사업의 하나로 영업을 해나가고, 피부과 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도 피부관리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며 버젓이 영업을 하는 상황이다. 현 상황은 피부관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무자격자에 의해 행해지는 불법 피부관리로 부작용이 발생하여 국민의 피부건강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피부관리의 선진국을 보면 피부관리사만을 위한 자격제도를 갖추고 양질의 피부관리사 배출에 힘쓰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하는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며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고, 1년의 실습기간을 거쳐야만 개업도 가능하다.

프랑스의 경우는²³⁾ 국가 기술자격시험(CAP: Certificat d'Aptitude Professionnelle)을 합격한 후 직업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실제 자격증인 BP(Bac Professionnelle)를 취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다르지만 철저한 전문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29일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미용사(피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8년부터는 미용사가 신설되는 ‘미용사(피부)’와 기존의 미용사인 ‘미용사(일반)’가 변경돼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된다. 신설되는 ‘미용사(피부)’의 필기시험 과목은 피부미용학, 피부학 및 해부 생리학, 피부미용기기학, 화장품학, 공중위생관리학 등이며, 실기시험은 피부미용실무로 발표됐다. 이번 피부관리사 국가 자격 신설은 공중위생 분야로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분야로 향후 국가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차원에서 수요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헤어,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제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전문화가 뒤처지고 있으므로 피부미용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자격을 제도화함으로써 피부미용분야 전문인력을 양성 할 수 있게 되었다.

② 관리프로그램의 다양화 모색

피부관리산업의 양적 성장과 경기침체는 피부관리산업 종사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과거 피부관리실을 열기만 하면 고객이 온다고 하던 시기는 지났고, 다양한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피부관리실도 나름대로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페이스관리 위주에서 벗어나 바디관리와, 체형, 비만관리로 관리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계의 프랜차이즈 몸매관리실이 관심을 끌고 있으며, 관련제품과 관련기기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관리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의

23) 월간피부관리사, 대한건강피부관리협회, 1997 1&2월 pp.100~102.

향을 도시로 가져온 아로마테라피, 지친 몸을 풀어주는 스파테라피 등이 그것이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잠깐 짬을 내서 들러 마사지를 받고 피로를 푸는 곳으로 도심스파가 인기를 얻고 있다.²⁴⁾

이제는 단순히 얼굴을 마사지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한 전반적인 관리프로그램을 모색하고 개발해야한다.

2) 제주도지역의 피부관리 현황

① 제주도 지역의 피부 관리 활동 현황

21세기는 무한 경쟁 시대가 전개되고, 국제화 추세가 확대되면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롯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고부가가치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는 에스테틱의 실정이 정부나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제주도 지역에는 사설 미용학원 11곳, 전문대학 뷰티관련학과 2곳, YWCA, 복지회관 등으로 구성되어 피부 관리를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수 많은 피부 관리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실제 피부관리실에서 현재 종사하는 추정 관리사수는 대략 700명이며, 피부 관리실 수는 대략 180여 곳으로 추정되며, 화장품 전문점내 피부관리실, 홈케어를 합친다면 추정이 힘들 정도이다. 개인 피부관리실 외에도 리조트 내 피부관리실이 7곳, 외국에서 직접투자하고 있는 호텔 내 체인점 1곳, 호텔 내부 피부관리실, 병원 내 피부관리실, 헤어샵 내 피부관리실, 화장품 전문점 내 피부관리실 등 좁은 경제적 구도에서도 다양하게 피부 관리실이 접목 분포 되어있다.

② 제주도 지역의 피부관리 실태

제주도는 최근 다양한 과실류의 개발로 인한 감귤 값의 하락과 더불어 관광객은 증가하여도 소비를 하지 않고 되돌아가는 현상으로 인해 경기 침체는 더욱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만 편중되어 있는 산업구조의 문제가 실업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취업과 창업을 목적으로 사설학원, 전문대학, 복지회관 등 각각의 교육기관에서 피

24) 중앙일보, 2002년6월28일자.

부 관리 교육을 이수하지만 일관되고 특색 있는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동일한 교육기간을 이수한 상황도 아니어서 졸업 후 적성에 맞는 취업이 어려우며 취업을 하더라도 배운 것을 활용하기 보다는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악조건들이 준비 없이 무분별한 창업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과 맞물려 특색 없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집 건너 미용실, 한집 건너 피부관리실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국제화와 개방화로 인해 제주도 지역의 소규모 개인 피부관리실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각 지역의 특산품과 문화를 널리 알리는 국내 지역 축제가 각 지역의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축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은 2003년 실적을 토대로 매경이코노미 선정 ‘2004 최우수 축제’로 금산 인삼축제, 보령 머드축제, 함평 나비 축제를 선정하였다. 이중 보령 머드축제를 살펴보면 ‘갯벌에서 황금을 캐다’라는 문구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지역 발전에 수익을 주고 있다. 98년 첫 축제를 시작으로 7년째를 맞이하여 축제만을 위해 14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이들이 지출한 돈은 무려 250억원 가량으로 특산품 부분 축제 1인당 지출액이 전국 2위에 이른다²⁵⁾. 이처럼 뷰티 산업에 접목하여 활성화된 축제로서는 처음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 지역의 경우 올 상반기 외국인 방문자수가 81,402명에 달한다. 여기에 국내 관광객과 수학여행단 등이 합쳐지면 1,184,661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이처럼 평균 방문자수가 높은 만큼 이들이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소비를 촉진시킬 프로그램을 뷰티 산업과 연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지역 축제가 평균 매월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축제들 중에서도 삼양해수욕장의 검은 모래찜질은 관절염과 신경통, 피부염에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고, 중문 해수욕장은 겨울철 펭귄수영대회가 건강에 초점을 두어 개최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개최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뷰티산업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다각도에서 뷰티축제가 추진되어 지방 경제발전에 활력을 주어야 한다.²⁶⁾

25) 자치뉴스,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2004.

26) 장원정, “제주도와 수도권외의 피부관리실 현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4.

또한 현재 개장하였거나, 개장 예정인 골프장, 리조트에 고품격의 피부관리실이 직접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뷰티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외 자본의 유치와 민간 기업을 유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 학계, 산업체 등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중복되는 사업이 없이 체계적으로 움직여 지역 경제 발전과 더불어 우리나라 뷰티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20~60대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년 2월 8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3주간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본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350부 였으며, 이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15부를 제외한 335부만을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및 내용

1) 측정도구

피부건강관리 지식 및 행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크게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특성요인은 8개 문항,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은 13개 문항,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행위에 관련 질문 중 화장품 사용에 관한 9개 문항, 피부관리에 관한 11개 문항, 생활습관에 관한 11개 문항으로 총 5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여성들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과 화장품 사용 실태, 피부관리 실태, 그리고 생활습관을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 검증과 빈도분석, t-test(검증), 그

리고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1>와 같이 Cronbach α 가 0.7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신뢰할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 측정도구의 신뢰도

구 분	문항 수	Alpha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13	(α)0.73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과 같다.

총 335명 중 연령별로는 20~29세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39세 31.3%, 40~49세 18.8%, 50~59세 9.0%, 60세 이상 3.6%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 여성이 6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고졸 26.9%, 대학원 이상 5.7%, 중졸 이하 3.9%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업이 4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업주부 14.6%, 사무직 14.0%, 기타 11.3%, 학생 8.7%, 전문기술직 6.0%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100~200만원 미만 4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300만원 미만 21.5%, 300~400만원 미만 14.0%, 100만원 미만 13.7%, 400~500만원 미만 5.4%, 500만원 이상 3.9%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이 나쁜 편인 여성이 31.7%로 좋은 편인 여성 22.1%보다 많았으며, 보통이다에 46.3%가 응답하였다.

피부타입별로는 복합성이 3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성 31.0%, 중성 13.7%, 지성 10.4%, 민감성 7.5%, 모름 3.6%, 기타 0.6% 순이었다. 신체 건강상태별로는 신체 건강상태가 건강한 여성이 44.8%로 나쁜 여성 10.5%보다 많았으며, 보통이다는 44.8%를 차지하였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연 령	20~29세	125	37.3
	30~39세	105	31.3
	40~49세	63	18.8
	50~59세	30	9.0
	60세 이상	12	3.6
학 력	중졸이하	13	3.9
	고 졸	90	26.9
	대 졸	213	63.6
	대학원이상	19	5.7
직 업	학 생	29	8.7
	서비스업	152	45.4
	사무직	47	14.0
	전문기술직	20	6.0
	전업주부	49	14.6
	기 타	38	11.3
가 정 의 월 평 소 균 득	100만원 미만	46	13.7
	100~200만원 미만	139	41.5
	200~300만원 미만	72	21.5
	300~400만원 미만	47	14.0
	400~500만원 미만	18	5.4
피부건강 상 태	500만원 이상	13	3.9
	매우 좋은 편	13	3.9
	좋은 편이다	61	18.2
	보통이다	155	46.3
	조금 나쁜 편	81	24.2
피부타입	매우 나쁜 편	25	7.5
	건 성	104	31.0
	중 성	46	13.7
	지 성	35	10.4
	복합성	111	33.1
	민감성	25	7.5
	모 립	12	3.6
기 타	2	0.6	
신체건강 상 태	매우 건강하다	22	6.6
	건강하다	128	38.2
	보통이다	150	44.8
	조금 나쁘다	32	9.6
	매우 나쁘다	3	0.9
계		335	100.0

2.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1)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

여성들이 피부건강관리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이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 얻는 여성이 4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친구 26.0%, 피부 관리실 11.6%, 기타 9.3%, 피부과 병원 8.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은 여성일수록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얻었고, 연령이 적은 여성일수록 가족/친구를 통해 많이 얻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여성이 대졸 이상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얻었고, 대졸 이상 여성은 고졸 이하 여성보다 가족/친구를 통해 많이 얻었으나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가족/친구를 통해 많이 얻었고,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얻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가족/친구를 통해 많이 얻었고, 200~300만원 미만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얻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이 나쁜 편인 여성일수록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가족/친구를 통해 많이 얻었고, 보통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얻었으나 피부건강 상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피부타입별로는 건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얻었고, 지성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가족/친구를 통해 많이 얻었으며, 피부타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29.63, p<.05$).

이상과 같이 여성들은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 가장

많이 얻었으며, 피부타입이 건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얻었다.

<표 3>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

구 분		피부과 병원	피부 관리실	가족 /친구	대중매체	기타	계	χ^2 (df)	p
연 령	20~29세	10 (8.0)	13 (10.4)	45 (36.0)	50 (40.0)	7 (5.6)	125 (37.3)	16.93 (12)	0.152
	30~39세	9 (8.6)	14 (13.3)	23 (21.9)	48 (45.7)	11 (10.5)	105 (31.3)		
	40~49세	5 (7.9)	6 (9.5)	15 (23.8)	31 (49.2)	6 (9.5)	63 (18.8)		
	50세 이상	3 (7.1)	6 (14.3)	4 (9.5)	22 (52.4)	7 (16.7)	42 (12.5)		
학 령	고졸 이하	5 (4.9)	10 (9.7)	23 (22.3)	51 (49.5)	14 (13.6)	103 (30.7)	6.81 (4)	0.146
	대졸 이상	22 (9.5)	29 (12.5)	64 (27.6)	100 (43.1)	17 (7.3)	232 (69.3)		
직 업	서비스업	11 (7.2)	19 (12.5)	43 (28.3)	67 (44.1)	12 (7.9)	152 (45.4)	11.88 (12)	0.456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6 (9.0)	11 (16.4)	18 (26.9)	29 (43.3)	3 (4.5)	67 (20.0)		
	기 타	5 (13.2)	2 (5.3)	6 (15.8)	20 (52.6)	5 (13.2)	38 (11.3)		
	무 직	5 (6.4)	7 (9.0)	20 (25.6)	35 (44.9)	11 (14.1)	78 (23.3)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3 (6.5)	2 (4.3)	15 (32.6)	21 (45.7)	5 (10.9)	46 (13.7)	8.08 (12)	0.779
	100~200만원 미만	12 (8.6)	20 (14.4)	35 (25.2)	58 (41.7)	14 (10.1)	139 (41.5)		
	200~300만원 미만	5 (6.9)	8 (11.1)	14 (19.4)	39 (54.2)	6 (8.3)	72 (21.5)		
	300만원 이상	7 (9.0)	9 (11.5)	23 (29.5)	33 (42.3)	6 (7.7)	78 (23.3)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6 (8.1)	9 (12.2)	15 (20.3)	33 (44.6)	11 (14.9)	74 (22.1)	10.13 (8)	0.256
	보 통	9 (5.8)	16 (10.3)	42 (27.1)	78 (50.3)	10 (6.5)	155 (46.3)		
	나쁜편	12 (11.3)	14 (13.2)	30 (28.3)	40 (37.7)	10 (9.4)	106 (31.6)		
피부 타입	건 성	5 (4.8)	12 (11.5)	19 (18.3)	53 (51.0)	15 (14.4)	104 (31.0)	29.63* (16)	0.020
	중 성	5 (10.9)	2 (4.3)	11 (23.9)	23 (50.0)	5 (10.9)	46 (13.7)		
	지 성	5 (14.3)	1 (2.9)	12 (34.3)	15 (42.9)	2 (5.7)	35 (10.4)		
	복합성	5 (4.5)	19 (17.1)	34 (30.6)	47 (42.3)	6 (5.4)	111 (33.1)		
	민감성	7 (17.9)	5 (12.8)	11 (28.2)	13 (33.3)	3 (7.7)	39 (11.6)		
계		27 (8.1)	39 (11.6)	87 (26.0)	151 (45.1)	31 (9.3)	335 (100.0)		

* p<.05

2)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①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여성들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수준

문항	그렇다	아니다	계
본인의 피부타입에 맞는 화장품 사용이 피부건강을 위해 좋다	312 (93.1)	23 (6.9)	335 (100.0)
기능성 화장품은 일반화장품에 비해 제품의 효능이 우수하다	234 (69.9)	101 (30.1)	335 (100.0)
계절에 따라 피부에 변화가 생긴다	252 (75.2)	83 (24.8)	335 (100.0)
피부 건강을 위한 비타민 등의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한다	71 (21.2)	264 (78.8)	335 (100.0)
음주, 흡연은 피부 손상에 영향을 미친다	299 (89.3)	36 (10.7)	335 (100.0)
충분한 영양섭취는 피부를 탄력있게 한다	304 (90.7)	31 (9.3)	335 (100.0)
자외선에 피부가 과도하게 노출되면 피부노화현상이 촉진된다	324 (96.7)	11 (3.3)	335 (100.0)
수면 부족은 피부건조화 및 탄력저하 현상을 초래하는 등 피부 건강에 유해하다	314 (93.7)	21 (6.3)	335 (100.0)
스트레스는 피부노화를 촉진한다	318 (94.9)	17 (5.1)	335 (100.0)
피부관리를 통해 피부의 조기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	320 (95.5)	15 (4.5)	335 (100.0)
정상피부란 수분과 유분이 같은 비율로 있는 상태를 말한다	265 (79.1)	70 (20.9)	335 (100.0)
운동은 피부건강에 도움이 된다	312 (93.1)	23 (6.9)	335 (100.0)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피부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322 (96.1)	13 (3.9)	335 (100.0)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중에는 ‘자외선에 피부가 과도하게 노출되면 피부 노화현상이 촉진된다’에 대해 96.7%로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피부건강에 영향을 미친다’에 96.1%, ‘피부관리를 통해 피부의 조기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에 9.55%, ‘스트레스는 피부노화를 촉진한다’에 94.9%, ‘수면 부족은 피부건조화 및 탄력저하 현상을 초래하는 등 피부 건강에 유해하다’에 93.7% 순으로 나타났고, ‘피부 건강

을 위한 비타민 등의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한다'에 대해 21.2%로 가장 낮은 인식을 보였다.

이상과 같이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중에는 자외선에 피부가 과도하게 노출되면 피부노화현상이 촉진된다는 데 대해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피부 건강을 위한 비타민 등의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한다'에 대해 가장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여성들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이 13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10.89로, 여성들은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은 여성일수록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이 높았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8.79, p<.001$). 이는 연령이 적은 여성일수록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 정보습득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여성이 고졸 이하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이 높았으며,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4.31, p<.001$).

직업별로는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이 높았고, 직업이 없는 여성은 직업이 있는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이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300만원 이상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이 높았고, 200~300만원 미만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이 낮았으나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 상태가 나쁜 편인 여성일수록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이 높았으며, 피부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35, p<.05$).

피부타입별로는 복합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이 높았고, 중성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구 분		N	Mean	SD	t(F)	p
연 령	20~29세	125	11.41	1.23	21.22***	0.000
	30~39세	105	11.23	1.27		
	40~49세	63	10.56	2.31		
	50세 이상	42	8.98	3.06		
학 력	고졸 이하	103	10.02	2.84	-4.31***	0.000
	대졸 이상	232	11.27	1.23		
직 업	서비스업	152	10.81	2.04	1.07	0.363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67	11.21	1.29		
	기 타	38	11.05	2.01		
	무 직	78	10.68	2.23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6	10.93	1.54	0.76	0.515
	100~200만원 미만	139	10.95	1.83		
	200~300만원 미만	72	10.58	2.47		
	300만원 이상	78	11.03	1.87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74	10.54	1.96	3.35*	0.036
	보 통	155	10.79	2.21		
	나쁜편	106	11.26	1.44		
피부 타입	건 성	104	10.69	2.01	1.56	0.185
	중 성	46	10.46	2.52		
	지 성	35	11.00	1.59		
	복합성	111	11.20	1.49		
	민감성	39	10.92	2.42		
전 체		335	10.89	1.96		

* p<.05, *** p<.001

이상과 같이 여성들은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이 높았으며, 연령이 적은 여성일수록, 대졸 이상인 여성, 그리고 피부건강 상태가 나쁜 편인 여성일수록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

3. 화장품 사용 실태

1) 피부건강관리의 필요성

피부건강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여성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이 피부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여성이 84.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여성은 4.8%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은 여성일수록 피부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40~49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0.07$, $p<.001$).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여성이 고졸 이하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1.87$, $p<.01$).

직업별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200~300만원 미만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300만원 이상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나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상태가 나쁜 편인 여성일수록 피부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피부건강상태가 좋은 편인 여성일수록 피부건강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6> 피부건강관리의 필요성

구 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모르겠다	계	X ² (df)	p
연 령	20~29세	111 (88.8)	2 (1.6)	12 (9.6)	125 (37.3)	30.07*** (6)	0.000
	30~39세	92 (87.6)	5 (4.8)	8 (7.6)	105 (31.3)		
	40~49세	55 (87.3)	6 (9.5)	2 (3.2)	63 (18.8)		
	50세 이상	26 (61.9)	3 (7.1)	13 (31.0)	42 (12.5)		
학 력	고졸 이하	77 (74.8)	9 (8.7)	17 (16.5)	103 (30.7)	11.87** (2)	0.003
	대졸 이상	207 (89.2)	7 (3.0)	18 (7.8)	232 (69.3)		
직 업	서비스업	134 (88.2)	8 (5.3)	10 (6.6)	152 (45.4)	8.49 (6)	0.204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58 (86.6)	2 (3.0)	7 (10.4)	67 (20.0)		
	기 타	31 (81.6)	3 (7.9)	4 (10.5)	38 (11.3)		
	무 직	61 (78.2)	3 (3.8)	14 (17.9)	78 (23.3)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38 (82.6)	1 (2.2)	7 (15.2)	46 (13.7)	6.50 (6)	0.370
	100~200만원 미만	118 (84.9)	6 (4.3)	15 (10.8)	139 (41.5)		
	200~300만원 미만	62 (86.1)	2 (2.8)	8 (11.1)	72 (21.5)		
	300만원 이상	66 (84.6)	7 (9.0)	5 (6.4)	78 (23.3)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56 (75.7)	7 (9.5)	11 (14.9)	74 (22.1)	8.66 (4)	0.070
	보 통	132 (85.2)	7 (4.5)	16 (10.3)	155 (46.3)		
	나쁜편	96 (90.6)	2 (1.9)	8 (7.5)	106 (31.6)		
피부 타입	건 성	88 (84.6)	5 (4.8)	11 (10.6)	104 (31.0)	12.85 (8)	0.117
	중 성	37 (80.4)	5 (10.9)	4 (8.7)	46 (13.7)		
	지 성	30 (85.7)	-	5 (14.3)	35 (10.4)		
	복합성	100 (90.1)	2 (1.8)	9 (8.1)	111 (33.1)		
	민감성	29 (74.4)	4 (10.3)	6 (15.4)	39 (11.6)		
계		284 (84.8)	16 (4.8)	35 (10.4)	335 (100.0)		

** p<.01, *** p<.001

피부타입별로는 중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였고, 복합성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피부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연령이 낮은 여성일수록, 그리고 학력이 대졸 이상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2) 피부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

여성들이 피부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이 피부에서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에 대해 관심을 갖는 여성이 3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름 18.8%, 피부건조 13.4%, 여드름 12.5%, 모공과 피부탄력 8.4%, 피지과다분비로 인한 피부 번들거림 5.4%, 문제없음 1.5%, 기타 1.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9세 여성이 다른 피부에서 여드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고, 40~49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졌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96.46$, $p<.001$).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여성이 대졸 이상 여성보다 피부에서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고, 대졸 이상 여성은 고졸 이하 여성보다 피부 건조에 많이 관심을 가졌으나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에서 피부 건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고,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에 많이 관심을 가졌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100~200만원 미만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에서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고, 200~300만원 미만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주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피부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

구 분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	여드름	주름	피부 건조	모공	피지 과다로 인한 피부 변들거림	피부 탄력	문제 없음	기타	계	χ^2 (df)	p
연령	20~29세	27 (21.6)	30 (24.0)	11 (8.8)	18 (14.4)	21 (16.8)	10 (8.0)	5 (4.0)	1 (0.8)	2 (1.6)	125 (37.3)	96.46*** (24)	0.000
	30~39세	38 (36.2)	10 (9.5)	17 (16.2)	18 (17.1)	4 (3.8)	5 (4.8)	7 (6.7)	4 (3.8)	2 (1.9)	105 (31.3)		
	40~49세	23 (36.5)	1 (1.6)	23 (36.5)	4 (6.3)	3 (4.8)	3 (4.8)	6 (9.5)	-	-	63 (18.8)		
	50세 이상	14 (33.3)	1 (2.4)	12 (28.6)	5 (11.9)	-	-	10 (23.8)	-	-	42 (12.5)		
학력	고졸 이하	32 (31.1)	8 (7.8)	30 (29.1)	10 (9.7)	8 (7.8)	4 (3.9)	9 (8.7)	1 (1.0)	1 (1.0)	103 (30.7)	13.71 (8)	0.090
	대졸 이상	70 (30.2)	34 (14.7)	33 (14.2)	35 (15.1)	20 (8.6)	14 (6.0)	19 (8.2)	4 (1.7)	3 (1.3)	232 (69.3)		
직업	서비스업	48 (31.6)	19 (12.5)	31 (20.4)	16 (10.5)	12 (7.9)	7 (4.6)	16 (10.5)	2 (1.3)	1 (0.7)	152 (45.4)	28.81 (24)	0.227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21 (31.3)	2 (3.0)	13 (19.4)	14 (20.9)	6 (9.0)	6 (9.0)	1 (1.5)	3 (4.5)	1 (1.5)	67 (20.0)		
	기 타	13 (34.2)	6 (15.8)	7 (18.4)	3 (7.9)	4 (10.5)	1 (2.6)	3 (7.9)	-	1 (2.6)	38 (11.3)		
	무 직	20 (25.6)	15 (19.2)	12 (15.4)	12 (15.4)	6 (7.7)	4 (5.1)	8 (10.3)	-	1 (1.3)	78 (23.3)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8 (17.4)	7 (15.2)	10 (21.7)	5 (10.9)	6 (13.0)	5 (10.9)	4 (8.7)	1 (2.2)	-	46 (13.7)	46.43** (24)	0.004
	100~200만원 미만	50 (36.0)	23 (16.5)	17 (12.2)	20 (14.4)	10 (7.2)	8 (5.8)	6 (4.3)	2 (1.4)	3 (2.2)	139 (41.5)		
	200~300만원 미만	23 (31.9)	5 (6.9)	24 (33.3)	4 (5.6)	8 (11.1)	2 (2.8)	5 (6.9)	1 (1.4)	-	72 (21.5)		
	300만원 이상	21 (26.9)	7 (9.0)	12 (15.4)	16 (20.5)	4 (5.1)	3 (3.8)	13 (16.7)	1 (1.3)	1 (1.3)	78 (23.3)		
피부건강상태	좋은편	19 (25.7)	3 (4.1)	16 (21.6)	15 (20.3)	3 (4.1)	1 (1.4)	15 (20.3)	2 (2.7)	-	74 (22.1)	63.30*** (16)	0.000
	보 통	52 (33.5)	10 (6.5)	37 (23.9)	18 (11.6)	14 (9.0)	11 (7.1)	8 (5.2)	2 (1.3)	3 (1.9)	155 (46.3)		
	나쁜편	31 (29.2)	29 (27.4)	10 (9.4)	12 (11.3)	11 (10.4)	6 (5.7)	5 (4.7)	1 (0.9)	1 (0.9)	106 (31.6)		
피부타입	건 성	45 (43.3)	2 (1.9)	22 (21.2)	24 (23.1)	3 (2.9)	1 (1.0)	4 (3.8)	3 (2.9)	-	104 (31.0)	104.52* ** (32)	0.000
	중 성	14 (30.4)	3 (6.5)	11 (23.9)	6 (13.0)	2 (4.3)	-	6 (13.0)	1 (2.2)	3 (6.5)	46 (13.7)		
	지 성	2 (5.7)	6 (17.1)	6 (17.1)	5 (14.3)	5 (14.3)	7 (20.0)	3 (8.6)	1 (2.9)	-	35 (10.4)		
	복합성	28 (25.2)	21 (18.9)	20 (18.0)	5 (4.5)	16 (14.4)	8 (7.2)	12 (10.8)	-	1 (0.9)	111 (33.1)		
	민감성	13 (33.3)	10 (25.6)	4 (10.3)	5 (12.8)	2 (5.1)	2 (5.1)	3 (7.7)	-	-	39 (11.6)		
계		102 (30.4)	42 (12.5)	63 (18.8)	45 (13.4)	28 (8.4)	18 (5.4)	28 (8.4)	5 (1.5)	4 (1.2)	335 (100.0)		

** p<.01, *** p<.001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 상태가 보통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에서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고, 피부건강이 나쁜 편인 여성은 다른 여드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으며, 피부건강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63.30$, $p<.001$).

피부타입별로는 건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에서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고, 민감성 및 기타 피부타입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여드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으며, 피부타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04.52$, $p<.01$).

이상과 같이 여성들은 피부에서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에 대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졌으며, 40~49세 여성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인 여성, 피부건강상태가 보통인 여성, 그리고 피부타입이 건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에서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다.

3) 피부건강관리를 위한 화장품 사용 여부

여성들이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이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화장품을 사용하는 여성이 73.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여성은 26.6%로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39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았고, 50세 이상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화장품을 사용하였으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여성이 대졸 이상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았고, 대졸 이상 여성은 고졸 이하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화장품을 사용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8> 피부건강관리를 위한 화장품 사용 여부

구 분		예	아니오	계	X ² (df)	p
연 령	20~29세	94 (75.2)	31 (24.8)	125 (37.3)	0.84 (3)	0.840
	30~39세	74 (70.5)	31 (29.5)	105 (31.3)		
	40~49세	46 (73.0)	17 (27.0)	63 (18.8)		
	50세 이상	32 (76.2)	10 (23.8)	42 (12.5)		
학 령	고졸 이하	71 (68.9)	32 (31.1)	103 (30.7)	1.54 (1)	0.214
	대졸 이상	175 (75.4)	57 (24.6)	232 (69.3)		
직 업	서비스업	118 (77.6)	34 (22.4)	152 (45.4)	2.61 (3)	0.456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46 (68.7)	21 (31.3)	67 (20.0)		
	기 타	27 (71.1)	11 (28.9)	38 (11.3)		
	무 직	55 (70.5)	23 (29.5)	78 (23.3)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7 (58.7)	19 (41.3)	46 (13.7)	9.76* (3)	0.021
	100~200만원 미만	104 (74.8)	35 (25.2)	139 (41.5)		
	200~300만원 미만	50 (69.4)	22 (30.6)	72 (21.5)		
	300만원 이상	65 (83.3)	13 (16.7)	78 (23.3)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57 (77.0)	17 (23.0)	74 (22.1)	6.88* (2)	0.032
	보 통	121 (78.1)	34 (21.9)	155 (46.3)		
	나쁜편	68 (64.2)	38 (35.8)	106 (31.6)		
피부 타입	건 성	74 (71.2)	30 (28.8)	104 (31.0)	4.58 (4)	0.333
	중 성	36 (78.3)	10 (21.7)	46 (13.7)		
	지 성	22 (62.9)	13 (37.1)	35 (10.4)		
	복합성	87 (78.4)	24 (21.6)	111 (33.1)		
	민감성	27 (69.2)	12 (30.8)	39 (11.6)		
계		246 (73.4)	89 (26.6)	335 (100.0)		

* p<.05

직업별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화장품을 사용하였고,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았고, 300만원 이상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화장품을 사용하였으며,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9.76$, $p<.05$).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 건강이 보통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화장품을 사용하였고, 나쁜 편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부건강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6.88$, $p<.05$).

피부타입별로는 지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았고, 복합성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화장품을 사용하였으나 피부타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화장품을 사용하였으며,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여성과 피부건강상태가 보통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화장품을 사용하였다.

4) 피부타입을 고려한 화장품 구입 정도

여성들이 화장품 구입 시 자신의 피부타입을 고려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69로, 여성들은 화장품 구입 시 자신의 피부타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은 여성일수록 화장품 구입 시 자신의 피부타입을 고려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6.36$, $p<.001$).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여성이 고졸 이하 여성보다 화장품 구입 시 자신의 피부타입을 고려하였으며,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79$, $p<.001$).

직업별로는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화장품 구입 시 자신의 피부타입을 고려하였고, 직업이 없는 여성은 직업이 있는 여성보다 화장품 구입 시 자신의 피부타입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9> 피부타입을 고려한 화장품 구입 정도

구 분		N	Mean	SD	t(F)	p
연 령	20~29세	125	3.83	0.90	6.36***	0.000
	30~39세	105	3.81	0.87		
	40~49세	63	3.56	0.88		
	50세 이상	42	3.17	1.25		
학 력	고졸 이하	103	3.38	1.05	-3.79***	0.000
	대졸 이상	232	3.83	0.88		
직 업	서비스업	152	3.74	0.95	1.20	0.308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67	3.81	0.89		
	기 타	38	3.61	0.95		
	무 직	78	3.54	1.02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6	3.63	0.97	1.84	0.139
	100~200만원 미만	139	3.73	0.93		
	200~300만원 미만	72	3.49	1.10		
	300만원 이상	78	3.83	0.83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74	3.64	1.02	0.20	0.821
	보 통	155	3.69	0.95		
	나쁜편	106	3.73	0.93		
피부 타입	건 성	104	3.78	0.86	1.01	0.403
	중 성	46	3.54	1.03		
	지 성	35	3.57	1.15		
	복합성	111	3.76	0.84		
	민감성	39	3.54	1.21		
전 체		335	3.69	0.96		

*** p<.001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300만원 이상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화장품 구입 시 자신의 피부타입을 고려하였고, 200~300만원 미만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화장품 구입 시 자신의 피부타입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이 나쁜 편인 여성일수록 화장품 구입 시 자신의 피부타입을 고려하였으나 피부건강 상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피부타입별로는 건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화장품 구입 시 자신의 피부타입을 고려하였고, 중성과 민감성 및 기타 피부타입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화장품 구입 시 자신의 피부타입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여성들은 화장품 구입 시 자신의 피부타입을 고려하였으며, 연령이 적은 여성일수록, 그리고 학력이 대졸 이상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화장품 구입 시 자신의 피부타입을 고려하였다.

5) 기초화장품 선택이 피부관리에 미치는 영향

기초화장품 선택이 피부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성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96으로, 여성들은 기초화장품 선택이 피부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9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기초화장품 선택이 피부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50세 이상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기초화장품 선택이 피부관리에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여성이 고졸 이하 여성보다 기초화장품 선택이 피부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직업별로는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기초화장품 선택이 피부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직업이 없는 여성은 있는 여성보다 기초화장품 선택이 피부관리에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나 직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300만원 이상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기초화장품 선택이 피부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200~300만원 미만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기초화장품 선택이 피부관리에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 기초화장품 선택이 피부관리에 미치는 영향

구 분		N	Mean	SD	t(F)	p
연 령	20~29세	125	4.04	0.86	1.36	0.254
	30~39세	105	3.94	0.72		
	40~49세	63	3.95	0.55		
	50세 이상	42	3.76	0.96		
학 력	고졸 이하	103	3.84	0.78	-1.78	0.076
	대졸 이상	232	4.01	0.78		
직 업	서비스업	152	3.91	0.85	1.13	0.336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67	4.03	0.78		
	기 타	38	4.13	0.58		
	무 직	78	3.90	0.73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6	3.93	0.83	0.37	0.772
	100~200만원 미만	139	3.94	0.84		
	200~300만원 미만	72	3.92	0.77		
	300만원 이상	78	4.04	0.65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74	4.03	0.79	0.63	0.532
	보 통	155	3.97	0.73		
	나쁜편	106	3.90	0.84		
피부 타입	건 성	104	3.98	0.70	0.56	0.695
	중 성	46	4.04	0.76		
	지 성	35	4.06	0.84		
	복합성	111	3.89	0.78		
	민감성	39	3.90	0.97		
전 체		335	3.96	0.78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이 좋은 편인 여성일수록 기초화장품 선택이 피부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피부타입별로는 지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기초화장품 선택이 피부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복합성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기초화장품 선택이 피부관리에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나 피부타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여성들은 기초화장품 선택이 피부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연령과 학력, 직업, 가정의 월평균 소득, 피부건강 상태, 그리고 피

부타입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사용하는 화장품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사용하는 화장품 (복수응답)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스 킨	313	20.4
로 셴	281	18.3
웨이빙폼	19	1.2
영양크림	223	14.5
에센스류	251	16.3
자외선차단제	228	14.8
미백화장품	82	5.3
주름개선화장품	126	8.2
기 타	14	0.9
계	1537	100.0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킨을 사용하는 여성이 2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로션 18.3%, 에센스류 16.3%, 자외선 차단제 14.8%, 영양크림 14.5%, 주름개선화장품 8.2%, 미백화장품 5.3%, 웨이빙폼 1.2%, 기타 0.9%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들은 화장품 중 스킨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화장품 부작용 경험

여성들이 화장품 부작용을 경험하였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12>와 같이 화장품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없는 여성이 64.2%로, 경험한 적이 여성 35.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은 여성일수록 화장품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없었고, 연령이 적은 여성일수록 있었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2.65$,

p<.01). 한경운²⁷⁾의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20~24세의 미혼 여성이 가장 화장품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화장품 사용기간 5년 미만의 젊은 층에서 화장품 부작용의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젊은 층에서 화장품 부작용의 발생비율이 높은 이유는 처음 화장품을 사용하는 시기이므로 화장품에 대한 피부의 적응력이 약하고 피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의 선택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각자의 피부 유형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여 건강한 피부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피부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여성이 고졸 이하 여성보다 화장품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며,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4.83$, $p<.05$).

직업별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화장품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직업이 없는 여성은 있는 여성보다 화장품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없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100~200만원 미만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화장품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200~300만원 미만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화장품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없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 상태가 나쁜 편인 여성일수록 화장품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피부건강 상태가 좋은 편인 여성일수록 화장품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없었으며, 피부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2.78$, $p<.01$).

피부타입별로는 중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화장품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없었고, 민감성 및 기타 피부타입은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화장품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나 피부타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27) 한경운, “화장품 사용에 따른 피부질환에 관한 조사연구”, 원광대학교, 1995.

<표 12> 화장품 부작용 경험

구 분		있다	없다	계	χ^2 (df)	p
연 령	20~29세	55 (44.0)	70 (56.0)	125 (37.3)	12.65** (3)	0.005
	30~39세	39 (37.1)	66 (62.9)	105 (31.3)		
	40~49세	20 (31.7)	43 (68.3)	63 (18.8)		
	50세 이상	6 (14.3)	36 (85.7)	42 (12.5)		
학 령	고졸 이하	28 (27.2)	75 (72.8)	103 (30.7)	4.83* (1)	0.028
	대졸 이상	92 (39.7)	140 (60.3)	232 (69.3)		
직 업	서비스업	63 (41.4)	89 (58.6)	152 (45.4)	5.08 (3)	0.166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24 (35.8)	43 (64.2)	67 (20.0)		
	기 타	12 (31.6)	26 (68.4)	38 (11.3)		
	무 직	21 (26.9)	57 (73.1)	78 (23.3)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6 (34.8)	30 (65.2)	46 (13.7)	0.59 (3)	0.899
	100~200만원 미만	53 (38.1)	86 (61.9)	139 (41.5)		
	200~300만원 미만	24 (33.3)	48 (66.7)	72 (21.5)		
	300만원 이상	27 (34.6)	51 (65.4)	78 (23.3)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15 (20.3)	59 (79.7)	74 (22.1)	12.78** (2)	0.002
	보 통	56 (36.1)	99 (63.9)	155 (46.3)		
	나쁜편	49 (46.2)	57 (53.8)	106 (31.6)		
피부 타입	건 성	38 (36.5)	66 (63.5)	104 (31.0)	8.66 (4)	0.070
	중 성	9 (19.6)	37 (80.4)	46 (13.7)		
	지 성	10 (28.6)	25 (71.4)	35 (10.4)		
	복합성	46 (41.4)	65 (58.6)	111 (33.1)		
	민감성	17 (43.6)	22 (56.4)	39 (11.6)		
계		120 (35.8)	215 (64.2)	335 (100.0)		

* p<.05, ** p<.01

이상과 같이 화장품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없는 여성이 있는 여성보다 많았으며, 연령이 적은 여성일수록, 대졸 이상인 여성, 그리고 피부건강 상태가 나쁜 편인 여성일수록 다른 여성보다 화장품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8) 화장품 사용 전 제품설명서 숙지 정도

여성들이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고 기능과 방법을 확인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10으로, 여성들은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고 기능과 방법을 그다지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49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고 기능과 방법을 확인하였고, 50세 이상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고 기능과 방법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0.32$, $p<.001$).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여성이 고졸 이하 여성보다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고 기능과 방법을 확인하였으며,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97$, $p<.01$).

직업별로는 서비스업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고 기능과 방법을 확인하였고, 직업이 없는 여성은 있는 여성보다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고 기능과 방법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9.04$, $p<.001$).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200~300만원 미만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고 기능과 방법을 확인하였고, 100~200만원 미만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고 기능과 방법을 확인하지 않았으나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13> 화장품 사용 전 제품설명서 숙지 정도

구 분		N	Mean	SD	t(F)	p
연 령	20~29세	125	3.21	1.12	10.32***	0.000
	30~39세	105	3.22	1.13		
	40~49세	63	3.30	1.15		
	50세 이상	42	2.19	1.23		
학 력	고졸 이하	103	2.82	1.24	-2.97**	0.003
	대졸 이상	232	3.23	1.14		
직 업	서비스업	152	3.38	1.09	9.04***	0.000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67	3.01	1.21		
	기 타	38	3.24	1.24		
	무 직	78	2.56	1.15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6	3.26	1.18	2.43	0.065
	100~200만원 미만	139	3.24	1.11		
	200~300만원 미만	72	3.04	1.26		
	300만원 이상	78	2.82	1.21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74	2.96	1.34	1.49	0.226
	보 통	155	3.06	1.09		
	나쁜편	106	3.25	1.20		
피부 타입	건 성	104	3.23	1.15	2.75*	0.028
	중 성	46	3.15	1.21		
	지 성	35	2.60	1.19		
	복합성	111	3.22	1.07		
	민감성	39	2.82	1.43		
전 체		335	3.10	1.19		

* p<.05, ** p<.01, *** p<.001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 상태가 나쁜 편인 여성일수록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고 기능과 방법을 확인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피부타입별로는 건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고 기능과 방법을 확인하였고, 지성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고 기능과 방법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부타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75, p<.05).

이상과 같이 여성들은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고 기능과 방법을 그다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40~49세 여성과 대졸 이상인 여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그리고 피부타입이 건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고 기능과 방법을 확인하였다.

9) 연령별 화장품의 필요성

연령별로 여러 종류의 화장품의 필요성에 대해 여성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14>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88로, 여성들은 연령별로 여러 종류의 화장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은 여성일수록 연령별로 여러 종류의 화장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3.94$, $p<.001$).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여성이 고졸 이하 여성보다 연령별로 여러 종류의 화장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5.39$, $p<.001$).

직업별로는 서비스업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연령별로 여러 종류의 화장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직업이 없는 여성은 있는 여성보다 연령별로 여러 종류의 화장품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99$, $p<.05$).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100~200만원 미만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연령별로 여러 종류의 화장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200~300만원 미만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연령별로 여러 종류의 화장품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14> 연령별 화장품의 필요성

구 분		N	Mean	SD	t(F)	p
연 령	20~29세	125	4.13	0.76	23.94***	0.000
	30~39세	105	4.01	0.80		
	40~49세	63	3.84	0.81		
	50세 이상	42	2.86	1.28		
학 력	고졸 이하	103	3.42	1.14	-5.39***	0.000
	대졸 이상	232	4.08	0.77		
직 업	서비스업	152	4.01	0.83	2.99*	0.031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67	3.90	0.91		
	기 타	38	3.87	0.99		
	무 직	78	3.62	1.12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6	3.91	0.92	2.36	0.072
	100~200만원 미만	139	4.02	0.88		
	200~300만원 미만	72	3.69	1.10		
	300만원 이상	78	3.77	0.91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74	3.61	1.21	3.98*	0.020
	보 통	155	3.94	0.88		
	나쁜편	106	3.98	0.79		
피부 타입	건 성	104	3.88	0.91	2.50*	0.043
	중 성	46	3.72	0.98		
	지 성	35	3.80	1.08		
	복합성	111	4.07	0.78		
	민감성	39	3.59	1.21		
전 체		335	3.88	0.95		

* p<.05, *** p<.001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 상태가 나쁜 편인 여성일수록 연령별로 여러 종류의 화장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피부건강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98, p<.05).

피부타입별로는 복합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연령별로 여러 종류의 화장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민감성 및 기타 피부타입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연령별로 여러 종류의 화장품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피부타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50, p<.05).

이상과 같이 여성들은 연령별로 여러 종류의 화장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연령이 적은 여성일수록, 대졸 이상인 여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피부건강 상태가 나쁜 편인 여성일수록, 그리고 피부타입이 복합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연령별로 여러 종류의 화장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4. 피부관리 실태

1) 피부관리 경험

여성들이 피부관리를 직접 해 본 경험이나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15>와 같이 피부관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여성이 49.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둘 다 없다 22.1%, 직접 해 본 경험이 있다 16.7%, 둘 다 있다 11.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49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고, 50세 이상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직접 해 본 경험이나 받아본 경험이 없었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8.12$, $p<.05$).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여성이 대졸 이상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직접 해 본 경험이나 받아본 경험이 둘 다 없었고, 대졸 이상 여성은 고졸 이하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으며,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2.79$, $p<.01$).

직업별로는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 관리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고, 직업이 없는 여성은 있는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직접 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15> 피부관리 경험

구 분		받아본 경험이 있다	직접 해 본 경험이 있다	둘 다 없다	둘 다 있다	계	χ^2 (df)	p
연 령	20~29세	53 (42.4)	30 (24.0)	28 (22.4)	14 (11.2)	125 (37.3)	18.12* (9)	0.034
	30~39세	59 (56.2)	10 (9.5)	19 (18.1)	17 (16.2)	105 (31.3)		
	40~49세	36 (57.1)	7 (11.1)	15 (23.8)	5 (7.9)	63 (18.8)		
	50세 이상	19 (45.2)	9 (21.4)	12 (28.6)	2 (4.8)	42 (12.5)		
학 력	고졸 이하	45 (43.7)	23 (22.3)	30 (29.1)	5 (4.9)	103 (30.7)	12.79** (3)	0.005
	대졸 이상	122 (52.6)	33 (14.2)	44 (19.0)	33 (14.2)	232 (69.3)		
직 업	서비스업	81 (53.3)	20 (13.2)	33 (21.7)	18 (11.8)	152 (45.4)	12.55 (9)	0.184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31 (46.3)	13 (19.4)	12 (17.9)	11 (16.4)	67 (20.0)		
	기 타	21 (55.3)	3 (7.9)	11 (28.9)	3 (7.9)	38 (11.3)		
	무 직	34 (43.6)	20 (25.6)	18 (23.1)	6 (7.7)	78 (23.3)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9 (41.3)	8 (17.4)	16 (34.8)	3 (6.5)	46 (13.7)	9.64 (9)	0.381
	100~200만원 미만	72 (51.8)	26 (18.7)	26 (18.7)	15 (10.8)	139 (41.5)		
	200~300만원 미만	37 (51.4)	10 (13.9)	18 (25.0)	7 (9.7)	72 (21.5)		
	300만원 이상	39 (50.0)	12 (15.4)	14 (17.9)	13 (16.7)	78 (23.3)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36 (48.6)	11 (14.9)	18 (24.3)	9 (12.2)	74 (22.1)	3.37 (6)	0.761
	보 통	81 (52.3)	23 (14.8)	36 (23.2)	15 (9.7)	155 (46.3)		
	나쁜편	50 (47.2)	22 (20.8)	20 (18.9)	14 (13.2)	106 (31.6)		
피부 타입	건 성	45 (43.3)	21 (20.2)	22 (21.2)	16 (15.4)	104 (31.0)	17.28 (12)	0.140
	중 성	22 (47.8)	6 (13.0)	12 (26.1)	6 (13.0)	46 (13.7)		
	지 성	17 (48.6)	4 (11.4)	11 (31.4)	3 (8.6)	35 (10.4)		
	복합성	66 (59.5)	19 (17.1)	15 (13.5)	11 (9.9)	111 (33.1)		
	민감성	17 (43.6)	6 (15.4)	14 (35.9)	2 (5.1)	39 (11.6)		
계		167 (49.9)	56 (16.7)	74 (22.1)	38 (11.3)	335 (100.0)		

* p<.05, ** p<.01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 관리를 직접 해 본 경험이나 받아본 경험이 없었고, 100~200만원 미만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 관리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으나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경제상태가 상류층일수록 안면마사지를 받는 횟수가 많다는 김복희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²⁸⁾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 상태가 보통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 관리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고, 피부건강 상태가 좋은 편인 여성일수록 피부 관리를 직접 해 본 경험이나 받아본 경험이 없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피부타입별로는 복합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 관리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고, 민감성 및 기타 피부타입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 관리를 직접 해 본 경험이나 받아본 경험이 없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피부관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많았으며, 40~49세인 여성과 대졸 이상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 관리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다.

2) 피부관리 경험이 없는 이유

여성들이 피부관리 경험이 없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피부관리 경험이 없는 이유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가격이 비싸서	17	23.0
시간이 없어서	18	24.3
피부관리를 한다고 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1	1.4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1	1.4
피부관리에 관심이 없어서	32	43.2
기타	5	6.8
계	74	100.0

28) 김복희, “여성의 피부미용관리 지식 및 행위와 관련요인”, 경산대학교, 1998.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관리에 관심이 없어서 피부관리 경험이 없는 여성이 4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간이 없어서 24.3%, 가격이 비싸서 23.0%, 기타 6.8%, 피부관리를 한다고 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와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각각 1.4%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부관리에 관심이 없어서 피부관리 경험이 없는 여성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3) 이용하는 피부관리실

여성들이 이용하는 피부관리실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7>과 같이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4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집 28.0%, 피부과 의원과 화장품 전문점이 각각 10.3%, 기타 3.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9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집에서 하였고, 30~39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실에서 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여성이 대졸 이상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집에서 하였고, 대졸 이상 여성은 고졸 이하 여성보다 피부관리실에서 하였으며,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8.50$, $p<.01$).

직업별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피부관리실에서 하였고, 직업이 없는 여성은 있는 여성보다 집에서 하였으나 직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집에서 하였고, 300만원 이상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실에서 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 상태가 좋은 편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화장품 전문점에서 하였고, 피부건강 상태가 나쁜 편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실에서 하였으나 피부건강 상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17> 이용하는 피부관리실

구 분		피부 관리실	피부과 의원	화장품 전문점	집	기타	계	X ² (df)	P
연 령	20~29세	44 (45.4)	11 (11.3)	5 (5.2)	34 (35.1)	3 (3.1)	97 (37.2)	19.81 (12)	0.071
	30~39세	49 (57.0)	9 (10.5)	10 (11.6)	18 (20.9)	-	86 (33.0)		
	40~49세	23 (47.9)	3 (6.3)	8 (16.7)	12 (25.0)	2 (4.2)	48 (18.4)		
	50세 이상	10 (33.3)	4 (13.3)	4 (13.3)	9 (30.0)	3 (10.0)	30 (11.5)		
학 령	고졸 이하	26 (35.6)	5 (6.8)	16 (21.9)	23 (31.5)	3 (4.1)	73 (28.0)	18.50** (4)	0.001
	대졸 이상	100 (53.2)	22 (11.7)	11 (5.9)	50 (26.6)	5 (2.7)	188 (72.0)		
직 업	서비스업	66 (55.5)	12 (10.1)	12 (10.1)	27 (22.7)	2 (1.7)	119 (45.6)	15.34 (12)	0.223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24 (43.6)	5 (9.1)	9 (16.4)	15 (27.3)	2 (3.6)	55 (21.1)		
	기 타	14 (51.9)	4 (14.8)	2 (7.4)	7 (25.9)	-	27 (10.3)		
	무 직	22 (36.7)	6 (10.0)	4 (6.7)	24 (40.0)	4 (6.7)	60 (23.0)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4 (46.7)	2 (6.7)	4 (13.3)	9 (30.0)	1 (3.3)	30 (11.5)	6.34 (12)	0.898
	100~200만원 미만	53 (46.9)	12 (10.6)	11 (9.7)	31 (27.4)	6 (5.3)	113 (43.3)		
	200~300만원 미만	25 (46.3)	7 (13.0)	7 (13.0)	15 (27.8)	-	54 (20.7)		
	300만원 이상	34 (53.1)	6 (9.4)	5 (7.8)	18 (28.1)	1 (1.6)	64 (24.5)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27 (48.2)	6 (10.7)	8 (14.3)	14 (25.0)	1 (1.8)	56 (21.5)	4.34 (8)	0.825
	보 통	57 (47.9)	10 (8.4)	14 (11.8)	34 (28.6)	4 (3.4)	119 (45.6)		
	나쁜편	42 (48.8)	11 (12.8)	5 (5.8)	25 (29.1)	3 (3.5)	86 (33.0)		
피부 타입	건 성	40 (48.8)	7 (8.5)	11 (13.4)	21 (25.6)	3 (3.7)	82 (31.4)	23.62 (16)	0.098
	중 성	15 (44.1)	2 (5.9)	6 (17.6)	11 (32.4)	-	34 (13.0)		
	지 성	7 (29.2)	3 (12.5)	2 (8.3)	10 (41.7)	2 (8.3)	24 (9.2)		
	복합성	54 (56.3)	9 (9.4)	8 (8.3)	24 (25.0)	1 (1.0)	96 (36.8)		
	민감성	10 (40.0)	6 (24.0)	-	7 (28.0)	2 (8.0)	25 (9.6)		
계		126 (48.3)	27 (10.3)	27 (10.3)	73 (28.0)	8 (3.1)	261 (100.0)		

** p<.01

피부타입별로는 지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집에서 하였고, 복합성인 여성은 다른 기타 여성보다 피부관리실에서 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여성들은 피부관리를 피부관리실에서 가장 많이 하였으며, 대졸 이상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피부관리실에서 하였다.

4) 피부관리를 하는 이유

여성들이 피부관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8>과 같이 피부관리를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하는 여성이 36.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젊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25.7%,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해 19.9%, 여드름 치료를 위해 7.7%, 주름 개선을 위해 5.4%, 모공 축소를 위해 3.4%, 기타 1.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은 여성일수록 피부관리를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하였고, 연령이 많은 여성일수록 젊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부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여성은 피부관리를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하였고, 대졸 이상 여성은 젊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였다.

직업별로는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하였고, 직업이 없는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젊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적은 여성일수록 피부관리를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하였고,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많은 여성일수록 젊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18> 피부관리를 하는 이유

구 분		젊은 피부를 유지하 기 위해	잡티없 는 깨끗한 피부를 위해	모공 축소를 위해	여드름 치료를 위해	탄력있 는 피부를 위해	주름 개선을 위해	기타	계	X ² (df)	p
연 령	20~29세	21 (21.6)	45 (46.4)	5 (5.2)	13 (13.4)	12 (12.4)	-	1 (1.0)	97 (37.2)	39.54** (18)	0.002
	30~39세	23 (26.7)	28 (32.6)	3 (3.5)	6 (7.0)	18 (20.9)	5 (5.8)	3 (3.5)	86 (33.0)		
	40~49세	11 (22.9)	14 (29.2)	1 (2.1)	1 (2.1)	13 (27.1)	7 (14.6)	1 (2.1)	48 (18.4)		
	50세 이상	12 (40.0)	7 (23.3)	-	-	9 (30.0)	2 (6.7)	-	30 (11.5)		
학 령	고졸 이하	18 (24.7)	28 (38.4)	2 (2.7)	1 (1.4)	13 (17.8)	10 (13.7)	1 (1.4)	73 (28.0)	19.09** (6)	0.004
	대졸 이상	49 (26.1)	66 (35.1)	7 (3.7)	19 (10.1)	39 (20.7)	4 (2.1)	4 (2.1)	188 (72.0)		
직 업	서비스업	31 (26.1)	44 (37.0)	4 (3.4)	11 (9.2)	22 (18.5)	5 (4.2)	2 (1.7)	119 (45.6)	11.40 (18)	0.877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11 (20.0)	22 (40.0)	3 (5.5)	1 (1.8)	13 (23.6)	4 (7.3)	1 (1.8)	55 (21.1)		
	기 타	7 (25.9)	12 (44.4)	-	3 (11.1)	4 (14.8)	1 (3.7)	-	27 (10.3)		
	무 직	18 (30.0)	16 (26.7)	2 (3.3)	5 (8.3)	13 (21.7)	4 (6.7)	2 (3.3)	60 (23.0)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6 (20.0)	13 (43.3)	2 (6.7)	2 (6.7)	6 (20.0)	1 (3.3)	-	30 (11.5)	22.74 (18)	0.201
	100~200만원 미만	25 (22.1)	41 (36.3)	4 (3.5)	13 (11.5)	19 (16.8)	6 (5.3)	5 (4.4)	113 (43.3)		
	200~300만원 미만	13 (24.1)	19 (35.2)	1 (1.9)	3 (5.6)	12 (22.2)	6 (11.1)	-	54 (20.7)		
	300만원 이상	23 (35.9)	21 (32.8)	2 (3.1)	2 (3.1)	15 (23.4)	1 (1.6)	-	64 (24.5)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16 (28.6)	26 (46.4)	-	-	11 (19.6)	1 (1.8)	2 (3.6)	56 (21.5)	26.93** (12)	0.008
	보 통	33 (27.7)	39 (32.8)	3 (2.5)	6 (5.0)	27 (22.7)	9 (7.6)	2 (1.7)	119 (45.6)		
	나쁜편	18 (20.9)	29 (33.7)	6 (7.0)	14 (16.3)	14 (16.3)	4 (4.7)	1 (1.2)	86 (33.0)		
피부 타입	건 성	25 (30.5)	28 (34.1)	-	1 (1.2)	20 (24.4)	6 (7.3)	2 (2.4)	82 (31.4)	35.49 (24)	0.062
	중 성	11 (32.4)	18 (52.9)	-	1 (2.9)	3 (8.8)	1 (2.9)	-	34 (13.0)		
	지 성	7 (29.2)	4 (16.7)	2 (8.3)	5 (20.8)	4 (16.7)	1 (4.2)	1 (4.2)	24 (9.2)		
	복합성	19 (19.8)	33 (34.4)	6 (6.3)	11 (11.5)	20 (20.8)	5 (5.2)	2 (2.1)	96 (36.8)		
	민감성	5 (20.0)	11 (44.0)	1 (4.0)	2 (8.0)	5 (20.0)	1 (4.0)	-	25 (9.6)		
계		67 (25.7)	94 (36.0)	9 (3.4)	20 (7.7)	52 (19.9)	14 (5.4)	5 (1.9)	261 (100.0)		

** p<.01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 상태가 좋은 편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하였고, 피부건강 상태가 보통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해서 하였으며, 피부건강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6.93$, $p<.01$).

피부타입별로는 건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해서 하였고, 중성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하였으나 피부타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피부관리를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하는 여성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이 적은 여성일수록, 고졸 이하인 여성, 그리고 피부건강 상태가 좋은 편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하였다.

5) 피부관리 횟수

여성들의 피부관리 횟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9>와 같이 피부관리를 주 1회 하는 여성이 2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 달에 1회 28.4%, 기타 19.9%, 주 2회 8.8%, 3개월에 1회 8.0%, 6개월에 1회 5.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39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 관리를 한 달에 1회 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피부관리를 주 1회 하였으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여성은 피부 관리를 한 달에 1회 하였고, 대졸 이상 여성은 주 1회 하였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피부관리를 한 달에 1회 하였고,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주 1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피부관리 횟수

구 분		주1회	주2회	한 달에 1번	3개월에 1번	6개월에 1번	기타	계	χ^2 (df)	p
연 령	20~29세	26 (26.8)	6 (6.2)	28 (28.9)	10 (10.3)	5 (5.2)	22 (22.7)	97 (37.2)	7.88 (15)	0.928
	30~39세	24 (27.9)	9 (10.5)	25 (29.1)	5 (5.8)	4 (4.7)	19 (22.1)	86 (33.0)		
	40~49세	16 (33.3)	4 (8.3)	13 (27.1)	3 (6.3)	3 (6.3)	9 (18.8)	48 (18.4)		
	50세 이상	11 (36.7)	4 (13.3)	8 (26.7)	3 (10.0)	2 (6.7)	2 (6.7)	30 (11.5)		
학 력	고졸 이하	13 (17.8)	10 (13.7)	26 (35.6)	7 (9.6)	6 (8.2)	11 (15.1)	73 (28.0)	12.37* (5)	0.030
	대졸 이상	64 (34.0)	13 (6.9)	48 (25.5)	14 (7.4)	8 (4.3)	41 (21.8)	188 (72.0)		
직 업	서비스업	34 (28.6)	11 (9.2)	38 (31.9)	7 (5.9)	9 (7.6)	20 (16.8)	119 (45.6)	15.06 (15)	0.447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12 (21.8)	3 (5.5)	14 (25.5)	6 (10.9)	3 (5.5)	17 (30.9)	55 (21.1)		
	기 타	10 (37.0)	4 (14.8)	7 (25.9)	1 (3.7)	1 (3.7)	4 (14.8)	27 (10.3)		
	무 직	21 (35.0)	5 (8.3)	15 (25.0)	7 (11.7)	1 (1.7)	11 (18.3)	60 (23.0)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3 (10.0)	3 (10.0)	7 (23.3)	4 (13.3)	1 (3.3)	12 (40.0)	30 (11.5)	32.47** (15)	0.006
	100~200만원 미만	30 (26.5)	6 (5.3)	36 (31.9)	9 (8.0)	9 (8.0)	23 (20.4)	113 (43.3)		
	200~300만원 미만	17 (31.5)	11 (20.4)	13 (24.1)	3 (5.6)	1 (1.9)	9 (16.7)	54 (20.7)		
	300만원 이상	27 (42.2)	3 (4.7)	18 (28.1)	5 (7.8)	3 (4.7)	8 (12.5)	64 (24.5)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17 (30.4)	9 (16.1)	14 (25.0)	5 (8.9)	5 (8.9)	6 (10.7)	56 (21.5)	16.16 (10)	0.095
	보 통	36 (30.3)	10 (8.4)	33 (27.7)	13 (10.9)	5 (4.2)	22 (18.5)	119 (45.6)		
	나쁜편	24 (27.9)	4 (4.7)	27 (31.4)	3 (3.5)	4 (4.7)	24 (27.9)	86 (33.0)		
피부 타입	건 성	25 (30.5)	6 (7.3)	22 (26.8)	7 (8.5)	5 (6.1)	17 (20.7)	82 (31.4)	12.19 (20)	0.909
	중 성	9 (26.5)	3 (8.8)	12 (35.3)	3 (8.8)	3 (8.8)	4 (11.8)	34 (13.0)		
	지 성	5 (20.8)	4 (16.7)	8 (33.3)	1 (4.2)	1 (4.2)	5 (20.8)	24 (9.2)		
	복합성	28 (29.2)	7 (7.3)	29 (30.2)	8 (8.3)	5 (5.2)	19 (19.8)	96 (36.8)		
	민감성	10 (40.0)	3 (12.0)	3 (12.0)	2 (8.0)	-	7 (28.0)	25 (9.6)		
계		77 (29.5)	23 (8.8)	74 (28.4)	21 (8.0)	14 (5.4)	52 (19.9)	261 (100.0)		

* p<.05, ** p<.01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100~200만원 미만인 여성은 피부관리를 한 달에 1회 하였고,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주 1회 하였다.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거나 보통인 여성이 나쁜 편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주 1회 하였고, 피부건강 상태가 나쁜 편인 여성일수록 한 달에 1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타입별로는 중성 피부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한 달에 1회 하였고, 민감성 및 기타 피부타입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주 1회 하였으나 피부타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피부관리를 주 1회 하는 여성이 가장 많았으며, 대졸 이상인 여성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많은 여성일수록 피부관리를 자주 하였다.

6) 피부관리 1회 비용

여성들이 피부관리 1회 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20>과 같이 피부관리 1회 시 1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여성이 39.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33.0%,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20.3%,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4.6%, 10만원 이상 2.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49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 1회 시 비용을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지출하였고, 50세 이상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1만원 미만 지출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여성이 대졸 이상 여성보다 피부관리 1회 시 비용을 1만원 미만을 지출하였고, 대졸 이상 여성은 고졸 이하 여성보다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지출하였으나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 1회 시 비용을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지출하였고, 직업이 없는 여성은 있는 여성보다 1만원 미만 지출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0> 피부관리 1회 비용

구 분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계	X ² (df)	p
연 령	20~29세	42 (43.3)	28 (28.9)	22 (22.7)	2 (2.1)	3 (3.1)	97 (37.2)	18.38 (12)	0.105
	30~39세	28 (32.6)	32 (37.2)	17 (19.8)	6 (7.0)	3 (3.5)	86 (33.0)		
	40~49세	19 (39.6)	22 (45.8)	5 (10.4)	2 (4.2)	-	48 (18.4)		
	50세 이상	15 (50.0)	4 (13.3)	9 (30.0)	2 (6.7)	-	30 (11.5)		
학 력	고졸 이하	31 (42.5)	26 (35.6)	15 (20.5)	1 (1.4)	-	73 (28.0)	5.02 (4)	0.285
	대졸 이상	73 (38.8)	60 (31.9)	38 (20.2)	11 (5.9)	6 (3.2)	188 (72.0)		
직 업	서비스업	39 (32.8)	45 (37.8)	25 (21.0)	6 (5.0)	4 (3.4)	119 (45.6)	9.55 (12)	0.655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22 (40.0)	20 (36.4)	11 (20.0)	1 (1.8)	1 (1.8)	55 (21.1)		
	기 타	13 (48.1)	7 (25.9)	5 (18.5)	2 (7.4)	-	27 (10.3)		
	무 직	30 (50.0)	14 (23.3)	12 (20.0)	3 (5.0)	1 (1.7)	60 (23.0)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7 (56.7)	11 (36.7)	2 (6.7)	-	-	30 (11.5)	12.91 (12)	0.375
	100~200만원 미만	44 (38.9)	40 (35.4)	22 (19.5)	4 (3.5)	3 (2.7)	113 (43.3)		
	200~300만원 미만	20 (37.0)	18 (33.3)	11 (20.4)	3 (5.6)	2 (3.7)	54 (20.7)		
	300만원 이상	23 (35.9)	17 (26.6)	18 (28.1)	5 (7.8)	1 (1.6)	64 (24.5)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27 (48.2)	14 (25.0)	11 (19.6)	3 (5.4)	1 (1.8)	56 (21.5)	5.23 (8)	0.732
	보 통	48 (40.3)	43 (36.1)	21 (17.6)	4 (3.4)	3 (2.5)	119 (45.6)		
	나쁜편	29 (33.7)	29 (33.7)	21 (24.4)	5 (5.8)	2 (2.3)	86 (33.0)		
피부 타입	건 성	32 (39.0)	36 (43.9)	12 (14.6)	2 (2.4)	-	82 (31.4)	38.19** (16)	0.001
	중 성	17 (50.0)	10 (29.4)	5 (14.7)	1 (2.9)	1 (2.9)	34 (13.0)		
	지 성	13 (54.2)	6 (25.0)	3 (12.5)	-	2 (8.3)	24 (9.2)		
	복합성	33 (34.4)	32 (33.3)	25 (26.0)	4 (4.2)	2 (2.1)	96 (36.8)		
	민감성	9 (36.0)	2 (8.0)	8 (32.0)	5 (20.0)	1 (4.0)	25 (9.6)		
계		104 (39.8)	86 (33.0)	53 (20.3)	12 (4.6)	6 (2.3)	261 (100.0)		

** p<.01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적은 여성일수록 피부관리 1회 시 비용을 1만원 미만을 지출하였고,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많은 여성일수록 3만원 이상~5만원 미만을 지출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 상태가 좋은 편인 여성일수록 피부관리 1회 시 비용을 1만원 미만을 지출하였고, 피부 건강이 나쁜 편인 여성일수록 3만원 이상~5만원 미만을 지출하였으나 피부 건강상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피부타입별로는 건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 1회 시 비용을 1만원 이상~3만원 미만을 지출하였고, 지성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1만원 미만을 지출하였으며, 피부 타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38.19$, $p<.01$).

이상과 같이 피부관리 1회 시 비용을 1만원 미만 지출하는 여성이 가장 많았으며, 피부타입이 민감성 및 기타 피부타입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 1회 시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7) 피부관리를 위한 방법

여성들이 피부관리를 위해 스스로 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21>과 같이 피부관리를 위해 가벼운 마사지를 하는 여성이 4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목욕/사우나 35.2%,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 8.0%, 네가지 모두 5.4%, 특수 마사지 3.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은 여성일수록 피부관리를 위해 가벼운 마사지를 많이 하였고, 연령이 많은 여성일수록 목욕/사우나를 많이 하였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여성이 대졸 이상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위해 가벼운 마사지를 많이 하였고, 대졸 이상 여성은 고졸 이하 여성보다 목욕/사우나를 많이 하였으나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21> 피부관리를 위한 방법

구 분		목욕/ 사우나	가벼운 마사지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	특수 마사지	네가지 모두	계	χ^2 (df)	p
연 령	20~29세	21 (21.6)	59 (60.8)	5 (5.2)	4 (4.1)	8 (8.2)	97 (37.2)	28.14** (12)	0.005
	30~39세	32 (37.2)	41 (47.7)	8 (9.3)	2 (2.3)	3 (3.5)	86 (33.0)		
	40~49세	21 (43.8)	20 (41.7)	3 (6.3)	2 (4.2)	2 (4.2)	48 (18.4)		
	50세 이상	18 (60.0)	6 (20.0)	5 (16.7)	-	1 (3.3)	30 (11.5)		
학 령	고졸 이하	31 (42.5)	29 (39.7)	8 (11.0)	3 (4.1)	2 (2.7)	73 (28.0)	5.76 (4)	0.218
	대졸 이상	61 (32.4)	97 (51.6)	13 (6.9)	5 (2.7)	12 (6.4)	188 (72.0)		
직 업	서비스업	43 (36.1)	56 (47.1)	10 (8.4)	4 (3.4)	6 (5.0)	119 (45.6)	4.41 (12)	0.975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17 (30.9)	28 (50.9)	4 (7.3)	1 (1.8)	5 (9.1)	55 (21.1)		
	기 타	9 (33.3)	15 (55.6)	2 (7.4)	1 (3.7)	-	27 (10.3)		
	무 직	23 (38.3)	27 (45.0)	5 (8.3)	2 (3.3)	3 (5.0)	60 (23.0)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8 (26.7)	16 (53.3)	3 (10.0)	1 (3.3)	2 (6.7)	30 (11.5)	10.59 (12)	0.564
	100~200만원 미만	38 (33.6)	61 (54.0)	6 (5.3)	4 (3.5)	4 (3.5)	113 (43.3)		
	200~300만원 미만	18 (33.3)	26 (48.1)	6 (11.1)	-	4 (7.4)	54 (20.7)		
	300만원 이상	28 (43.8)	23 (35.9)	6 (9.4)	3 (4.7)	4 (6.3)	64 (24.5)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17 (30.4)	28 (50.0)	6 (10.7)	-	5 (8.9)	56 (21.5)	7.38 (8)	0.496
	보 통	43 (36.1)	60 (50.4)	6 (5.0)	5 (4.2)	5 (4.2)	119 (45.6)		
	나쁜편	32 (37.2)	38 (44.2)	9 (10.5)	3 (3.5)	4 (4.7)	86 (33.0)		
피부 타입	건 성	31 (37.8)	39 (47.6)	8 (9.8)	4 (4.9)	-	82 (31.4)	18.77 (16)	0.281
	중 성	12 (35.3)	16 (47.1)	3 (8.8)	1 (2.9)	2 (5.9)	34 (13.0)		
	지 성	13 (54.2)	6 (25.0)	2 (8.3)	-	3 (12.5)	24 (9.2)		
	복합성	29 (30.2)	53 (55.2)	5 (5.2)	2 (2.1)	7 (7.3)	96 (36.8)		
	민감성	7 (28.0)	12 (48.0)	3 (12.0)	1 (4.0)	2 (8.0)	25 (9.6)		
계		92 (35.2)	126 (48.3)	21 (8.0)	8 (3.1)	14 (5.4)	261 (100.0)		

** p<.01

직업별로는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위해 가벼운 마사지를 많이 하였고, 직업이 없는 여성은 있는 여성보다 목욕/사우나를 많이 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100~200만원 미만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위해 가벼운 마사지를 많이 하였고, 300만원 이상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목욕/사우나를 많이 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 상태가 보통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위해 가벼운 마사지를 많이 하였고, 피부건강 상태가 나쁜 편인 여성일수록 목욕/사우나를 많이 하였으나 피부 건강상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피부타입별로는 지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위해 목욕/사우나를 많이 하였고, 복합성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가벼운 마사지를 많이 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여성들은 피부관리를 위해 가벼운 마사지를 가장 많이 하였으며, 연령이 적은 여성일수록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위해 가벼운 마사지를 많이 하였다.

8) 피부관리 후 효과에 대한 만족도

피부관리 후 효과에 대한 여성들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2>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56으로, 여성들은 피부관리 후 효과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 후 효과에 대해 만족하였고, 20~29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 후 효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보다 피부관리 후 효과에 대해 만족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2> 피부관리 후 효과에 대한 만족도

구 분		N	Mean	SD	t(F)	p
연 령	20~29세	97	3.40	0.64	4.38**	0.005
	30~39세	86	3.64	0.70		
	40~49세	48	3.52	0.65		
	50세 이상	30	3.87	0.68		
학 력	고졸 이하	73	3.49	0.75	-0.92	0.357
	대졸 이상	188	3.58	0.65		
직 업	서비스업	119	3.54	0.65	0.74	0.529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55	3.67	0.67		
	기 타	27	3.48	0.75		
	무 직	60	3.52	0.73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30	3.30	0.70	2.59	0.054
	100~200만원 미만	113	3.51	0.68		
	200~300만원 미만	54	3.69	0.67		
	300만원 이상	64	3.64	0.65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56	3.89	0.65	12.28***	0.000
	보 통	119	3.55	0.63		
	나쁜편	86	3.34	0.68		
피부 타입	건 성	82	3.62	0.66	2.47*	0.045
	중 성	34	3.82	0.67		
	지 성	24	3.54	0.72		
	복합성	96	3.44	0.66		
	민감성	25	3.44	0.71		
전 체		261	3.56	0.68		

* p<.05, ** p<.01, *** p<.001

직업별로는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 후 효과에 대해 만족하였고,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 후 효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200~300만원 미만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 후 효과에 대해 만족하였고, 100만원 미만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 후 효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으나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 상태가 좋은 편인 여성일수록 피부관리 후 효과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피부건강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2.28, p<.001$). 여드름, 기미등 문제성 피부의 경우 피부관리를 할 경우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음에 따라 만족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피부타입별로는 중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 후 효과에 대해 만족하였고, 복합성과 민감성 및 기타 피부타입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 후 효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으며, 피부타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47, p<.05$).

이상과 같이 여성들은 피부관리 후 효과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50세 이상인 여성과 피부건강 상태가 좋은 편인 여성일수록, 그리고 피부타입이 중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 후 효과에 대해 만족하였다.

9)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이용하는 피부관리실의 형태

여성들이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이용하는 피부관리실의 형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23>과 같이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여성고객 위주 관리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6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이 이용할 의향이 있다 24.5%, 남·녀 비슷하게 이용하는 관리실 9.3%,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이 이용할 의향이 없다 2.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39세 여성이 다른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여성고객 위주 관리실을 많이 이용하였고, 50세 이상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실이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이 이용할 의향이 있었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1.48, p<.05$).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여성이 대졸 이상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이 이용할 의향이 있었고, 대졸 이상 여성은 고졸 이하 여성보다 여성고객 위주 관리실을 많이 이용하였으며,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3.55, p<.01$).

<표 23>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이용하는 피부관리실의 형태

구 분		여성고객 위주 관리실	남, 녀 비슷하게 이용하는 관리실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이 이용할 의향이 있다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이 이용할 의향이 없다	계	χ^2 (df)	p
연 령	20~29세	82 (65.5)	11 (8.8)	30 (24.0)	2 (1.6)	125 (37.3)	20.51* (9)	0.015
	30~39세	72 (68.6)	12 (11.4)	21 (20.0)	-	105 (31.3)		
	40~49세	38 (60.3)	7 (11.1)	15 (23.8)	3 (4.8)	63 (18.8)		
	50세 이상	21 (50.0)	1 (2.4)	16 (38.1)	4 (9.5)	42 (12.5)		
학 력	고졸 이하	60 (58.3)	6 (5.8)	30 (29.1)	7 (6.8)	103 (30.7)	13.22** (3)	0.004
	대졸 이상	153 (65.9)	25 (10.8)	52 (22.4)	2 (0.9)	232 (69.3)		
직 업	서비스업	105 (69.1)	15 (9.9)	30 (19.7)	2 (1.3)	152 (45.4)	16.53 (9)	0.057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36 (53.7)	10 (14.9)	20 (29.9)	1 (1.5)	67 (20.0)		
	기 타	28 (73.7)	1 (2.6)	7 (18.4)	2 (5.3)	38 (11.3)		
	무 직	44 (56.4)	5 (6.4)	25 (32.1)	4 (5.1)	78 (23.3)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5 (54.3)	1 (2.2)	18 (39.1)	2 (4.3)	46 (13.7)	21.01* (9)	0.013
	100~200만원 미만	96 (69.1)	14 (10.1)	23 (16.5)	6 (4.3)	139 (41.5)		
	200~300만원 미만	39 (54.2)	8 (11.1)	25 (34.7)	-	72 (21.5)		
	300만원 이상	53 (67.9)	8 (10.3)	16 (20.5)	1 (1.3)	78 (23.3)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38 (51.4)	9 (12.2)	23 (31.1)	4 (5.4)	74 (22.1)	8.25 (6)	0.220
	보 통	106 (68.4)	11 (7.1)	35 (22.6)	3 (1.9)	155 (46.3)		
	나쁜편	69 (65.1)	11 (10.4)	24 (22.6)	2 (1.9)	106 (31.6)		
피부 타입	건 성	69 (66.3)	6 (5.8)	27 (26.0)	2 (1.9)	104 (31.0)	26.08* (12)	0.010
	중 성	28 (60.9)	4 (8.7)	14 (30.4)	-	46 (13.7)		
	지 성	14 (40.0)	6 (17.1)	14 (40.0)	1 (2.9)	35 (10.4)		
	복합성	80 (72.1)	11 (9.9)	18 (16.2)	2 (1.8)	111 (33.1)		
	민감성	22 (56.4)	4 (10.3)	9 (23.1)	4 (10.3)	39 (11.6)		
계		213 (63.6)	31 (9.3)	82 (24.5)	9 (2.7)	335 (100.0)		

* p<.05, ** p<.01

직업별로는 기타에 종사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여성고객 위주 관리실을 많이 이용하였고, 직업이 없는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이 이용할 의향이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이 이용할 의향이 있었고, 100~200만원 미만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여성고객 위주 관리실을 많이 이용하였으며,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2.06$, $p<.05$).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 상태가 좋은 편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피부관리실은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이 이용할 의향이 있었고, 피부건강 상태가 보통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여성고객 위주 관리실을 많이 이용하였으나 피부건강 상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피부타입별로는 지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피부관리실은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이 이용할 의향이 있었고, 복합성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여성고객 위주 관리실을 많이 이용하였으며, 피부타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1.07$, $p<.05$).

이상과 같이 여성들은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여성고객 위주 관리실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30~39세인 여성과 대졸 이상인 여성,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인 여성, 그리고 피부타입이 복합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여성고객 위주 관리실을 많이 이용하였다.

10) 미용성형수술 의향

여성들이 미용성형수술을 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24>와 같이 미용성형수술을 할 의향이 없는 여성이 52.5%로, 있는 여성 47.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미용성형수술 의향

구 분		예	아니오	계	X ² (df)	p
연 령	20~29세	59 (47.2)	66 (52.8)	125 (37.3)	0.49 (3)	0.921
	30~39세	49 (46.7)	56 (53.3)	105 (31.3)		
	40~49세	29 (46.0)	34 (54.0)	63 (18.8)		
	50세 이상	22 (52.4)	20 (47.6)	42 (12.5)		
학 력	고졸 이하	48 (46.6)	55 (53.4)	103 (30.7)	0.04 (1)	0.834
	대졸 이상	111 (47.8)	121 (52.2)	232 (69.3)		
직 업	서비스업	72 (47.4)	80 (52.6)	152 (45.4)	3.71 (3)	0.294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38 (56.7)	29 (43.3)	67 (20.0)		
	기 타	17 (44.7)	21 (55.3)	38 (11.3)		
	무 직	32 (41.0)	46 (59.0)	78 (23.3)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9 (41.3)	27 (58.7)	46 (13.7)	2.27 (3)	0.519
	100~200만원 미만	63 (45.3)	76 (54.7)	139 (41.5)		
	200~300만원 미만	35 (48.6)	37 (51.4)	72 (21.5)		
	300만원 이상	42 (53.8)	36 (46.2)	78 (23.3)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39 (52.7)	35 (47.3)	74 (22.1)	1.15 (2)	0.563
	보 통	70 (45.2)	85 (54.8)	155 (46.3)		
	나쁜편	50 (47.2)	56 (52.8)	106 (31.6)		
피부 타입	건 성	47 (45.2)	57 (54.8)	104 (31.0)	5.33 (4)	0.255
	중 성	22 (47.8)	24 (52.2)	46 (13.7)		
	지 성	20 (57.1)	15 (42.9)	35 (10.4)		
	복합성	57 (51.4)	54 (48.6)	111 (33.1)		
	민감성	13 (33.3)	26 (66.7)	39 (11.6)		
계		159 (47.5)	176 (52.5)	335 (100.0)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여성이 49세 이하 여성보다 미용성형수술을 할 의향이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여성이 고졸 이하 여성보다 미용성형수술을 할 의향이 있었으나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미용성형수술을 할 의향이 있었고, 직업이 없는 여성은 있는 여성보다 미용성형수술을 할 의향이 없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많은 여성일수록 미용성형수술을 할 의향이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이 좋은 편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미용성형수술을 할 의향이 있었고, 보통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미용성형수술을 할 의향이 없었으나 피부건강 상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피부타입별로는 건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미용성형수술을 할 의향이 없었고, 지성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미용성형수술을 할 의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미용성형수술을 할 의향이 없는 여성이 있는 여성보다 많았으며, 연령과 학력, 직업, 가정의 월평균 소득, 피부건강 상태, 그리고 피부타입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1) 피부관리실에서의 발관리, 아로마관리에 대한 인식

피부관리실에서의 발관리, 아로마관리에 대해 여성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25>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84로, 여성들은 피부관리실에서 발관리, 아로마관리 등과 같은 전문관리를 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9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실에서 발관리, 아로마관리 등과 같은 전문관리를 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40~49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실에서 발관리, 아로마관리 등과 같은 전문관리를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25> 피부관리실에서 발관리, 아로마관리에 대한 인식

구 분		N	Mean	SD	t(F)	p
연 령	20~29세	125	3.93	0.79	1.29	0.278
	30~39세	105	3.82	0.84		
	40~49세	63	3.70	0.71		
	50세 이상	42	3.83	0.58		
학 력	고졸 이하	103	3.70	0.64	-2.23*	0.026
	대졸 이상	232	3.90	0.81		
직 업	서비스업	152	3.93	0.72	1.67	0.173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67	3.82	0.92		
	기 타	38	3.71	0.84		
	무 직	78	3.73	0.68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6	3.63	0.77	1.40	0.242
	100~200만원 미만	139	3.89	0.81		
	200~300만원 미만	72	3.83	0.75		
	300만원 이상	78	3.87	0.71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74	3.86	0.76	0.52	0.597
	보 통	155	3.79	0.75		
	나쁜편	106	3.89	0.80		
피부 타입	건 성	104	3.85	0.72	0.25	0.912
	중 성	46	3.89	0.67		
	지 성	35	3.89	0.76		
	복합성	111	3.78	0.86		
	민감성	39	3.87	0.77		
전 체		335	3.84	0.77		

* p<.05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여성이 고졸 이하 여성보다 피부관리실에서 발관리, 아로마관리 등과 같은 전문관리를 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23$, $p<.05$).

직업별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실에서 발관리, 아로마관리 등과 같은 전문관리를 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실에서 발관리, 아로마관리 등과 같은 전문관리를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

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100~200만원 미만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실에서 발관리, 아로마관리 등과 같은 전문관리를 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100만원 미만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실에서 발관리, 아로마관리 등과 같은 전문관리를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이 나쁜 편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실에서 발관리, 아로마관리 등과 같은 전문관리를 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보통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실에서 발관리, 아로마관리 등과 같은 전문관리를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피부건강 상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피부타입별로는 중성과 지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실에서 발관리, 아로마관리 등과 같은 전문관리를 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복합성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실에서 발관리, 아로마관리 등과 같은 전문관리를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여성들은 피부관리실에서 발관리, 아로마관리 등과 같은 전문관리를 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학력이 대졸 이상인 여성이 고졸 이하인 여성보다 피부관리실에서 발관리, 아로마관리 등과 같은 전문관리를 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5. 생활습관

1) 흡연 정도

① 흡연 정도

여성들이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26>과 같이 현재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여성이 87.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약간 피운다 7.5%, 많이 피운다 3.3%, 아주 많이 피운다 1.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은 여성일수록 현재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고, 연

령이 적은 여성일수록 담배를 많이 피웠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0.84$, $p<.05$).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여성이 고졸 이하 여성보다 현재 담배를 많이 피웠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현재 담배를 많이 피웠고, 직업이 없는 여성은 있는 여성보다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으나 직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100~200만원 미만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현재 담배를 많이 피웠고, 300만원 이상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으며,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2.98$, $p<.01$).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 상태가 좋은 편인 여성일수록 현재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고, 피부건강 상태가 나쁜 편인 여성일수록 담배를 많이 피웠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피부타입별로는 건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현재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고, 지성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담배를 많이 피웠으며, 피부타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2.62$, $p<.05$).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현재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으며, 연령이 적은 여성일수록,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인 여성, 그리고 피부타입이 지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현재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흡연 정도

구 분		전혀 하지 않는다	약간 피운다	많이 피운다	아주 많이 피운다	계	X ² (df)	p
연 령	20~29세	105 (84.0)	13 (10.4)	2 (1.6)	5 (4.0)	125 (37.3)	20.84* (9)	0.013
	30~39세	89 (84.8)	8 (7.6)	8 (7.6)	-	105 (31.3)		
	40~49세	57 (90.5)	4 (6.3)	1 (1.6)	1 (1.6)	63 (18.8)		
	50세 이상	42 (100.0)	-	-	-	42 (12.5)		
학 력	고졸 이하	91 (88.3)	8 (7.8)	1 (1.0)	3 (2.9)	103 (30.7)	3.50 (3)	0.321
	대졸 이상	202 (87.1)	17 (7.3)	10 (4.3)	3 (1.3)	232 (69.3)		
직 업	서비스업	131 (86.2)	12 (7.9)	6 (3.9)	3 (2.0)	152 (45.4)	4.58 (9)	0.870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56 (83.6)	6 (9.0)	3 (4.5)	2 (3.0)	67 (20.0)		
	기 타	34 (89.5)	2 (5.3)	1 (2.6)	1 (2.6)	38 (11.3)		
	무 직	72 (92.3)	5 (6.4)	1 (1.3)	-	78 (23.3)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1 (89.1)	1 (2.2)	-	4 (8.7)	46 (13.7)	22.98** (9)	0.006
	100~200만원 미만	117 (84.2)	14 (10.1)	7 (5.0)	1 (0.7)	139 (41.5)		
	200~300만원 미만	62 (86.1)	7 (9.7)	2 (2.8)	1 (1.4)	72 (21.5)		
	300만원 이상	73 (93.6)	3 (3.8)	2 (2.6)	-	78 (23.3)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68 (91.9)	5 (6.8)	1 (1.4)	-	74 (22.1)	7.74 (6)	0.258
	보 통	137 (88.4)	9 (5.8)	7 (4.5)	2 (1.3)	155 (46.3)		
	나쁜편	88 (83.0)	11 (10.4)	3 (2.8)	4 (3.8)	106 (31.6)		
피부 타입	건 성	97 (93.3)	5 (4.8)	2 (1.9)	-	104 (31.0)	22.62* (12)	0.031
	중 성	39 (84.8)	5 (10.9)	1 (2.2)	1 (2.2)	46 (13.7)		
	지 성	25 (71.4)	4 (11.4)	3 (8.6)	3 (8.6)	35 (10.4)		
	복합성	99 (89.2)	9 (8.1)	2 (1.8)	1 (0.9)	111 (33.1)		
	민감성	33 (84.6)	2 (5.1)	3 (7.7)	1 (2.6)	39 (11.6)		
계		293 (87.5)	25 (7.5)	11 (3.3)	6 (1.8)	335 (100.0)		

* p<.05, ** p<.01

② 흡연기간

여성들이 담배를 피운 기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 흡연기간

구 분	빈도(명)	백분율(%)
1년 미만	9	16.7
1~3년 미만	3	5.6
3~5년 미만	8	14.8
5~8년 미만	9	16.7
8~10년 미만	13	24.1
10~15년 미만	11	20.4
15년 이상	1	1.9
계	54	100.0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배를 피운 기간이 8~10년 미만인 여성이 2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15년 미만 20.4%, 1년 미만과 5~8년 미만 16.7%, 3~5년 미만 14.8%, 1~3년 미만 5.6%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담배를 피운 기간이 8~10년 미만인 여성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③ 흡연 후 피부건강을 위한 비타민 섭취 정도

여성들이 흡연을 한 후 피부건강을 위해 비타민 섭취에 신경을 쓰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28>과 같이 흡연을 한 후 피부건강을 위해 비타민 섭취에 신경을 쓰지 않는 여성이 63.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신경을 쓰는 여성은 37.1%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들은 흡연을 한 후 피부건강을 위해 비타민 섭취에 비교적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8> 흡연 후 피부건강을 위한 비타민 섭취 정도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신경 쓰는 편이다	7	13.0
가끔 신경 쓰는 편이다	13	24.1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34	63.0
계	54	100.0

2) 음주 정도

① 음주 정도

여성들이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29>와 같이 술을 한 달에 1회 마시는 여성이 2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주일에 1회 17.9%, 1주일에 2~3회 14.3%, 2주일에 1회 14.0% 순으로 나타났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여성은 26.9%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은 여성일수록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연령이 적은 여성일수록 1주일에 1회 술을 마셨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79.89, p<.001$).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여성이 대졸 이상 여성보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대졸 이상 여성은 고졸 이하 여성보다 1주일에 1회 술을 마셨으며,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3.60, p<.01$).

직업별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술을 1주일에 1회 술을 마셨고,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한 달에 1회, 직업이 없는 여성은 있는 여성보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으며,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3.60, p<.05$).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100~200만원 미만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술을 1주일에 2~3회 마셨고, 200~300만원 미만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29> 음주 정도

구 분		전혀 마시지 않는다	1주일에 2~3회	1주일에 1회	2주일에 1회	한 달에 1회	계	X ² (df)	p
연 령	20~29세	7 (5.6)	26 (20.8)	36 (28.8)	22 (17.6)	34 (27.2)	125 (37.3)	79.89*** (12)	0.000
	30~39세	30 (28.6)	13 (12.4)	17 (16.2)	16 (15.2)	29 (27.6)	105 (31.3)		
	40~49세	25 (39.7)	8 (12.7)	7 (11.1)	7 (11.1)	16 (25.4)	63 (18.8)		
	50세 이상	28 (66.7)	1 (2.4)	-	2 (4.8)	11 (26.2)	42 (12.5)		
학 력	고졸 이하	36 (35.0)	17 (16.5)	9 (8.7)	10 (9.7)	31 (30.1)	103 (30.7)	13.66** (4)	0.008
	대졸 이상	54 (23.3)	31 (13.4)	51 (22.0)	37 (15.9)	59 (25.4)	232 (69.3)		
직 업	서비스업	35 (23.0)	27 (17.8)	34 (22.4)	24 (15.8)	32 (21.1)	152 (45.4)	33.60** (12)	0.001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15 (22.4)	3 (4.5)	14 (20.9)	11 (16.4)	24 (35.8)	67 (20.0)		
	기 타	9 (23.7)	7 (18.4)	3 (7.9)	1 (2.6)	18 (47.4)	38 (11.3)		
	무 직	31 (39.7)	11 (14.1)	9 (11.5)	11 (14.1)	16 (20.5)	78 (23.3)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7 (15.2)	7 (15.2)	9 (19.6)	5 (10.9)	18 (39.1)	46 (13.7)	19.79 (12)	0.071
	100~200만원 미만	29 (20.9)	27 (19.4)	22 (15.8)	22 (15.8)	39 (28.1)	139 (41.5)		
	200~300만원 미만	27 (37.5)	6 (8.3)	13 (18.1)	9 (12.5)	17 (23.6)	72 (21.5)		
	300만원 이상	27 (34.6)	8 (10.3)	16 (20.5)	11 (14.1)	16 (20.5)	78 (23.3)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27 (36.5)	9 (12.2)	10 (13.5)	9 (12.2)	19 (25.7)	74 (22.1)	8.43 (8)	0.307
	보 통	38 (24.5)	26 (16.8)	29 (18.7)	26 (16.8)	36 (23.2)	155 (46.3)		
	나쁜편	25 (23.6)	13 (12.3)	21 (19.8)	12 (11.3)	35 (33.0)	106 (31.6)		
피부 타입	건 성	37 (35.6)	14 (13.5)	13 (12.5)	15 (14.4)	25 (24.0)	104 (31.0)	23.89 (16)	0.092
	중 성	15 (32.6)	5 (10.9)	10 (21.7)	2 (4.3)	14 (30.4)	46 (13.7)		
	지 성	11 (31.4)	5 (14.3)	4 (11.4)	5 (14.3)	10 (28.6)	35 (10.4)		
	복합성	17 (15.3)	15 (13.5)	24 (21.6)	21 (18.9)	34 (30.6)	111 (33.1)		
	민감성	10 (25.6)	9 (23.1)	9 (23.1)	4 (10.3)	7 (17.9)	39 (11.6)		
계		90 (26.9)	48 (14.3)	60 (17.9)	47 (14.0)	90 (26.9)	335 (100.0)		

** p<.01, *** p<.001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 상태가 좋은 편인 여성일수록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보통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1주일에 2~3회 마셨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피부타입별로는 건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민감성 및 기타 타입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1주일에 술을 2~3회 마셨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술을 마시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많았으며, 연령이 적은 여성일수록, 대졸 이상 여성,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술을 자주 마셨다.

② 음주량

여성들의 음주량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30>과 같이 술을 소주 반병 미만 마시는 여성이 4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주 반병~1병 37.6%, 소주 2~3병 16.3%, 소주 4병 이상 1.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은 여성일수록 소주 반병~1병 마셨으며, 50대이상 연령이 높은 여성일수록 음주량이 소주반병 미만으로 적게 나타났다.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이 좋은 편인 여성일수록 술을 소주 반병 미만 마셨고, 피부건강이 나쁜 편인 여성일수록 소주 반병~1병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타입별로는 중성인 여성은 술을 소주 반병 미만 마셨고, 복합성인 여성은 소주 반병~1병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술을 소주 반병 미만 마시는 여성이 가장 많았으며, 50세 이상 여성과 고졸 이하 여성,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200~300만원 미만인 여성, 그리고 피부타입이 중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술을 소주 반병 미만 마셨다.

<표 30> 음주량

구 분		소수 반병 미만	소주 반병~1병	소주 2~3병	소주 4병 이상	계	X ² (df)	p
연 령	20~29세	32 (27.1)	56 (47.5)	28 (23.7)	2 (1.7)	118 (48.2)	33.55*** (9)	0.000
	30~39세	44 (58.7)	22 (29.3)	8 (10.7)	1 (1.3)	75 (30.6)		
	40~49세	21 (55.3)	12 (31.6)	4 (10.5)	1 (2.6)	38 (15.5)		
	50세 이상	12 (85.7)	2 (14.3)	-	-	14 (5.7)		
학 령	고졸 이하	34 (50.7)	16 (23.9)	16 (23.9)	1 (1.5)	67 (27.3)	8.64* (3)	0.035
	대졸 이상	75 (42.1)	76 (42.7)	24 (13.5)	3 (1.7)	178 (72.7)		
직 업	서비스업	49 (41.9)	48 (41.0)	18 (15.4)	2 (1.7)	117 (47.8)	7.55 (9)	0.580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25 (48.1)	20 (38.5)	7 (13.5)	-	52 (21.2)		
	기 타	16 (55.2)	9 (31.0)	4 (13.8)	-	29 (11.8)		
	무 직	19 (40.4)	15 (31.9)	11 (23.4)	2 (4.3)	47 (19.2)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0 (51.3)	11 (28.2)	8 (20.5)	-	39 (15.9)	21.59* (9)	0.010
	100~200만원 미만	38 (34.5)	48 (43.6)	23 (20.9)	1 (0.9)	110 (44.9)		
	200~300만원 미만	25 (55.6)	15 (33.3)	2 (4.4)	3 (6.7)	45 (18.4)		
	300만원 이상	26 (51.0)	18 (35.3)	7 (13.7)	-	51 (20.8)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28 (59.6)	11 (23.4)	8 (17.0)	-	47 (19.2)	10.23 (6)	0.115
	보 통	49 (41.9)	46 (39.3)	21 (17.9)	1 (0.9)	117 (47.8)		
	나쁜편	32 (39.5)	35 (43.2)	11 (13.6)	3 (3.7)	81 (33.1)		
피부 타입	건 성	33 (49.3)	27 (40.3)	6 (9.0)	1 (1.5)	67 (27.3)	25.16* (12)	0.014
	중 성	17 (54.8)	8 (25.8)	6 (19.4)	-	31 (12.7)		
	지 성	7 (29.2)	10 (41.7)	6 (25.0)	1 (4.2)	24 (9.8)		
	복합성	41 (43.6)	41 (43.6)	12 (12.8)	-	94 (38.4)		
	민감성	11 (37.9)	6 (20.7)	10 (34.5)	2 (6.9)	29 (11.8)		
계		109 (44.5)	92 (37.6)	40 (16.3)	4 (1.6)	245 (100.0)		

* p<.05, *** p<.00

③ 음주 후 피부건강을 위한 수분 섭취

여성들이 음주 후에 피부건강을 위해 물을 마시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31>과 같이 음주 후에 피부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인 여성이 32.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평상시와 똑같다 31.4%, 조금 마시는 편이다 26.5%, 마시지 않는 편이다 5.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49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음주 후에 피부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었고, 50세 이상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평상시와 똑같이 마셨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여성이 대졸 이상 여성보다 음주 후에 피부건강을 위해 물을 마시지 않았고, 대졸 이상 여성은 고졸 이하 여성보다 많이 마시는 편이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직업별로는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음주 후에 피부건강을 위해 물을 평상시와 똑같이 마셨고, 직업이 없는 여성은 있는 여성보다 많이 마시는 편이었으나 직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100~200만원 미만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음주 후에 피부건강을 위해 물을 평상시와 똑같이 마셨고, 200~300만원 미만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많이 마시는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1> 음주 후 피부건강을 위한 수분 섭취

구 분		많이 마시는 편이다	조금 마시는 편이다	평상시와 똑같다	마시지 않는 편이다	모르겠다	계	χ^2 (df)	p
연 령	20~29세	34 (28.8)	33 (28.0)	38 (32.2)	8 (6.8)	5 (4.2)	118 (48.2)	17.13 (12)	0.145
	30~39세	23 (30.7)	23 (30.7)	24 (32.0)	2 (2.7)	3 (4.0)	75 (30.6)		
	40~49세	20 (52.6)	5 (13.2)	8 (21.1)	4 (10.5)	1 (2.6)	38 (15.5)		
	50세 이상	2 (14.3)	4 (28.6)	7 (50.0)	-	1 (7.1)	14 (5.7)		
학 력	고졸 이하	20 (29.9)	17 (25.4)	21 (31.3)	8 (11.9)	1 (1.5)	67 (27.3)	7.98 (4)	0.092
	대졸 이상	59 (33.1)	48 (27.0)	56 (31.5)	6 (3.4)	9 (5.1)	178 (72.7)		
직 업	서비스업	32 (27.4)	35 (29.9)	37 (31.6)	9 (7.7)	4 (3.4)	117 (47.8)	8.08 (12)	0.779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19 (36.5)	12 (23.1)	18 (34.6)	1 (1.9)	2 (3.8)	52 (21.2)		
	기 타	10 (34.5)	5 (17.2)	11 (37.9)	1 (3.4)	2 (6.9)	29 (11.8)		
	무 직	18 (38.3)	13 (27.7)	11 (23.4)	3 (6.4)	2 (4.3)	47 (19.2)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3 (33.3)	9 (23.1)	11 (28.2)	3 (7.7)	3 (7.7)	39 (15.9)	9.56 (12)	0.655
	100~200만원 미만	33 (30.0)	32 (29.1)	39 (35.5)	5 (4.5)	1 (0.9)	110 (44.9)		
	200~300만원 미만	16 (35.6)	11 (24.4)	12 (26.7)	2 (4.4)	4 (8.9)	45 (18.4)		
	300만원 이상	17 (33.3)	13 (25.5)	15 (29.4)	4 (7.8)	2 (3.9)	51 (20.8)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16 (34.0)	16 (34.0)	14 (29.8)	-	1 (2.1)	47 (19.2)	10.05 (8)	0.261
	보 통	40 (34.2)	30 (25.6)	36 (30.8)	5 (4.3)	6 (5.1)	117 (47.8)		
	나쁜편	23 (28.4)	19 (23.5)	27 (33.3)	9 (11.1)	3 (3.7)	81 (33.1)		
피부 타입	건 성	19 (28.4)	15 (22.4)	26 (38.8)	6 (9.0)	1 (1.5)	67 (27.3)	23.75 (16)	0.095
	중 성	13 (41.9)	9 (29.0)	6 (19.4)	-	3 (9.7)	31 (12.7)		
	지 성	6 (25.0)	9 (37.5)	5 (20.8)	2 (8.3)	2 (8.3)	24 (9.8)		
	복합성	28 (29.8)	28 (29.8)	32 (34.0)	5 (5.3)	1 (1.1)	94 (38.4)		
	민감성	13 (44.8)	4 (13.8)	8 (27.6)	1 (3.4)	3 (10.3)	29 (11.8)		
계		79 (32.2)	65 (26.5)	77 (31.4)	14 (5.7)	10 (4.1)	245 (100.0)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이 좋은 편과 보통인 여성이 나쁜 편인 여성보다 음주 후에 피부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었고, 피부건강이

나쁜 편인 여성일수록 평상시와 똑같이 마셨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피부타입별로는 건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음주 후에 피부건강을 위해 물을 평상시와 똑같이 마셨고, 민감성 및 기타 타입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많이 마시는 편이었으나 피부타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음주 후에 피부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인 여성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과 학력, 직업, 가정의 월평균 소득, 피부건강 상태, 그리고 피부타입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피부관리를 위하여 선호하는 식품 종류

여성들이 피부관리를 위하여 선호하는 식품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32>와 같이 피부관리를 위해 과일류를 선호하는 여성이 3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수 35.5%, 채소류 21.5%, 육류 4.5%, 건강보조식품 1.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9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위해 생수를 선호하였고, 30~39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과일류를 선호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여성이 대졸 이상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위해 채소류를 선호하였고, 대졸 이상 여성은 고졸 이하 여성보다 생수와 과일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위해 생수를 선호하였고,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과일류를 선호하였으나 직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별로는 1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위해 생수를 선호하였고, 100~2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과일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피부관리를 위하여 선호하는 식품 종류

구 분		채소류	육류	생수	건강보조 식품	과일류	계	X ² (df)	p
연 령	20~29세	19 (15.2)	6 (4.8)	51 (40.8)	-	49 (39.2)	125 (37.3)	18.74 (12)	0.095
	30~39세	19 (18.1)	6 (5.7)	36 (34.3)	2 (1.9)	42 (40.0)	105 (31.3)		
	40~49세	22 (34.9)	2 (3.2)	18 (28.6)	2 (3.2)	19 (30.2)	63 (18.8)		
	50세 이상	12 (28.6)	1 (2.4)	14 (33.3)	2 (4.8)	13 (31.0)	42 (12.5)		
학 령	고졸 이하	28 (27.2)	3 (2.9)	32 (31.1)	6 (5.8)	34 (33.0)	103 (30.7)	17.96** (4)	0.001
	대졸 이상	44 (19.0)	12 (5.2)	87 (37.5)	-	89 (38.4)	232 (69.3)		
직 업	서비스업	31 (20.4)	7 (4.6)	58 (38.2)	3 (2.0)	53 (34.9)	152 (45.4)	3.46 (12)	0.991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13 (19.4)	3 (4.5)	21 (31.3)	1 (1.5)	29 (43.3)	67 (20.0)		
	기 타	8 (21.1)	1 (2.6)	13 (34.2)	1 (2.6)	15 (39.5)	38 (11.3)		
	무 직	20 (25.6)	4 (5.1)	27 (34.6)	1 (1.3)	26 (33.3)	78 (23.3)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1 (23.9)	2 (4.3)	19 (41.3)	4 (8.7)	10 (21.7)	46 (13.7)	30.26** (12)	0.003
	100~200만원 미만	30 (21.6)	5 (3.6)	45 (32.4)	-	59 (42.4)	139 (41.5)		
	200~300만원 미만	22 (30.6)	5 (6.9)	23 (31.9)	1 (1.4)	21 (29.2)	72 (21.5)		
	300만원 이상	9 (11.5)	3 (3.8)	32 (41.0)	1 (1.3)	33 (42.3)	78 (23.3)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13 (17.6)	5 (6.8)	31 (41.9)	-	25 (33.8)	74 (22.1)	6.48 (8)	0.593
	보 통	37 (23.9)	5 (3.2)	49 (31.6)	3 (1.9)	61 (39.4)	155 (46.3)		
	나쁜편	22 (20.8)	5 (4.7)	39 (36.8)	3 (2.8)	37 (34.9)	106 (31.6)		
피부 타입	건 성	19 (18.3)	3 (2.9)	39 (37.5)	1 (1.9)	41 (39.4)	104 (31.0)	7.50 (16)	0.962
	중 성	9 (19.6)	3 (6.5)	14 (30.4)	1 (2.2)	19 (41.3)	46 (13.7)		
	지 성	7 (20.0)	1 (2.9)	13 (37.1)	1 (2.9)	13 (37.1)	35 (10.4)		
	복합성	25 (22.5)	5 (4.5)	42 (37.8)	2 (1.8)	37 (33.3)	111 (33.1)		
	민감성	12 (30.8)	3 (7.7)	11 (28.2)	-	13 (33.3)	39 (11.6)		
계		72 (21.5)	15 (4.5)	119 (35.5)	6 (1.6)	123 (36.7)	335 (100.0)		

** p<.01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이 좋은 편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위해 생수를 선호하였고, 보통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과일류를 선호

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피부타입별로는 건성과 복합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위해 생수를 선호하였고, 중성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과일류를 선호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여성들은 피부관리를 위해 과일류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대졸 이상 여성과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100~2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피부관리를 위해 과일류를 선호하였다.

4) 피부건강 관리를 위한 규칙적인 취침

여성들이 평소 피부건강 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취침을 하고 기상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33>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71로, 여성들은 평소 피부건강 관리를 위해 그다지 규칙적으로 취침을 하고 기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은 여성일수록 평소 피부건강 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취침을 하고 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여성이 대졸 이상 여성보다 평소 피부건강 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취침을 하고 기상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업과 직업이 없는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평소 피부건강 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취침을 하고 기상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300만원 이상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평소 피부건강 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취침을 하고 기상하였고, 100~200만원 미만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평소 피부건강 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취침을 하고 기상하지 않았으나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33> 피부건강 관리를 위한 규칙적인 취침

구 분		N	Mean	SD	t(F)	p
연 령	20~29세	125	2.52	0.98	2.65*	0.049
	30~39세	105	2.78	1.04		
	40~49세	63	2.81	1.03		
	50세 이상	42	2.95	1.01		
학 력	고졸 이하	103	2.77	0.99	0.68	0.499
	대졸 이상	232	2.69	1.03		
직업	서비스업	152	2.72	0.97	0.03	0.992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67	2.69	1.13		
	기 타	38	2.68	1.12		
	무 직	78	2.73	0.98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6	2.67	1.01	0.79	0.500
	100~200만원 미만	139	2.64	0.99		
	200~300만원 미만	72	2.71	1.13		
	300만원 이상	78	2.86	0.96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74	2.86	1.16	2.34	0.098
	보 통	155	2.75	0.94		
	나쁜편	106	2.55	1.01		
피부 타입	건 성	104	2.70	1.09	0.58	0.681
	중 성	46	2.70	1.03		
	지 성	35	2.49	1.01		
	복합성	111	2.77	0.92		
	민감성	39	2.79	1.11		
전 체		335	2.71	1.02		

* p<.05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이 좋은 편인 여성일수록 평소 피부건강 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취침을 하고 기상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피부타입별로는 민감성 및 기타 타입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평소 피부건강 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취침을 하고 기상하였고, 지성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평소 피부건강 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취침을 하고 기상하지 않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여성들은 평소 피부건강 관리를 위해 그다지 규칙적으로 취침을 하고 기상하지 않았으며, 연령이 많은 여성일수록 다른 여성보다 평소 피부건강 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취침을 하고 기상하였다.

5) 평소의 스트레스 정도

여성들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34>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51로, 여성들은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은 여성일수록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여성이 고졸 이하 여성보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200~300만원 미만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100만원 미만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이 나쁜 편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보통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으며, 피부건강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7.75, p<.01$).

피부타입별로는 지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민감성 및 기타 타입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으나 피부타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34> 평소의 스트레스 정도

구 분		N	Mean	SD	t(F)	p
연 령	20~29세	125	3.56	0.82	0.94	0.422
	30~39세	105	3.55	0.80		
	40~49세	63	3.44	0.67		
	50세 이상	42	3.36	0.85		
학 력	고졸 이하	103	3.41	0.79	-1.59	0.112
	대졸 이상	232	3.56	0.79		
직 업	서비스업	152	3.56	0.74	5.51**	0.001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67	3.76	0.84		
	기 타	38	3.37	0.85		
	무 직	78	3.27	0.75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6	3.30	0.96	1.94	0.123
	100~200만원 미만	139	3.57	0.74		
	200~300만원 미만	72	3.61	0.82		
	300만원 이상	78	3.44	0.71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74	3.41	0.86	7.75**	0.001
	보 통	155	3.39	0.68		
	나쁜편	106	3.75	0.84		
피부 타입	건 성	104	3.48	0.79	1.31	0.266
	중 성	46	3.50	0.86		
	지 성	35	3.63	0.84		
	복합성	111	3.59	0.65		
	민감성	39	3.28	0.97		
전 체		335	3.51	0.79		

** p<.01, *** p<.001

이상과 같이 여성들은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여성과 피부건강이 나쁜 편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6)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노력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35>

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01로,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그다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노력

구 분		N	Mean	SD	t(F)	p
연 령	20~29세	125	2.94	0.85	1.37	0.253
	30~39세	105	2.94	0.98		
	40~49세	63	3.08	0.87		
	50세 이상	42	3.24	1.08		
학 력	고졸 이하	103	3.17	1.03	2.09*	0.038
	대졸 이상	232	2.93	0.87		
직 업	서비스업	152	2.99	0.89	0.49	0.688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67	3.04	0.98		
	기 타	38	2.87	0.91		
	무 직	78	3.08	0.96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6	2.98	1.02	0.73	0.537
	100~200만원 미만	139	2.93	0.85		
	200~300만원 미만	72	3.10	1.05		
	300만원 이상	78	3.08	0.88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74	3.01	1.07	0.41	0.667
	보 통	155	2.96	0.86		
	나쁜편	106	3.07	0.92		
피부 타입	건 성	104	3.08	0.93	1.31	0.266
	중 성	46	3.15	0.94		
	지 성	35	2.86	1.22		
	복합성	111	3.01	0.78		
	민감성	39	2.77	0.96		
전 체		335	3.01	0.93		

* p<.05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39세 이하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으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여성이 대졸 이상 여성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

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09$, $p<.05$).

직업별로는 직업이 없는 여성이 있는 여성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200~300만원 미만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100~200만원 미만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이 나쁜 편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보통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으나 피부건강 상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피부타입별로는 중성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민감성 및 기타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그다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으며, 학력이 고졸 이하인 여성이 대졸 이상인 여성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7) 건강을 위한 수영이나 조깅 등의 운동 정도

여성들이 건강을 위해 수영이나 조깅 등의 운동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36>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57로, 여성들은 건강을 위해 수영이나 조깅 등의 운동을 그다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건강을 위한 수영이나 조깅 등의 운동 정도

구 분		N	Mean	SD	t(F)	p
연 령	20~29세	125	2.38	1.10	7.23***	0.000
	30~39세	105	2.45	1.20		
	40~49세	63	2.65	1.12		
	50세 이상	42	3.29	1.07		
학 력	고졸 이하	103	2.57	1.17	0.06	0.953
	대졸 이상	232	2.56	1.16		
직 업	서비스업	152	2.40	1.12	2.36	0.071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67	2.61	1.21		
	기 타	38	2.63	1.10		
	무 직	78	2.82	1.20		
가정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6	2.33	1.19	1.01	0.390
	100~200만원 미만	139	2.55	1.12		
	200~300만원 미만	72	2.64	1.17		
	300만원 이상	78	2.68	1.21		
피부 건강 상태	좋은편	74	2.78	1.29	5.97**	0.003
	보 통	155	2.68	1.11		
	나쁜편	106	2.25	1.10		
피부 타입	건 성	104	2.48	1.19	3.91**	0.004
	중 성	46	2.74	1.08		
	지 성	35	2.74	1.44		
	복합성	111	2.33	1.05		
	민감성	39	3.10	1.05		
전 체		335	2.57	1.16		

** p<.01, *** p<.001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은 여성일수록 건강을 위해 수영이나 조깅 등의 운동을 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7.23, p<.001).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여성과 대졸 이상 여성이 별다른 차이 없이 건강을 위해 수영이나 조깅 등의 운동을 그다지 하지 않았다.

직업별로는 직업이 없는 여성이 있는 여성보다 건강을 위해 수영이나 조깅 등의 운동을 하였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건강을 위해 수영이나 조깅 등의 운동을 하지 않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많은 여성일수록 건강을 위해 수영이나 조깅 등의 운동을 하였으나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피부건강 상태별로는 피부건강이 좋은 편인 여성일수록 건강을 위해 수영이나 조깅 등의 운동을 하였으며, 피부건강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5.97, p<.01$).

피부타입별로는 민감성 및 기타 타입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건강을 위해 수영이나 조깅 등의 운동을 하였고, 복합성인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건강을 위해 수영이나 조깅 등의 운동을 하지 않았으며, 피부타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91, p<.01$).

이상과 같이 여성들은 건강을 위해 수영이나 조깅 등의 운동을 그다지 하지 않았으며, 연령이 많은 여성일수록, 피부건강이 좋은 편인 여성일수록, 그리고 피부타입이 민감성 및 기타 타입인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건강을 위해 수영이나 조깅 등의 운동을 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과학문명의 급속한 발전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경제적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들은 신체 외적인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더 채우려 하고 있다. 특히 여성에게는 신체의 일부분인 피부의 건강이 다른 신체부위의 건강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수리적 위치, 난류의 영향, 해양상의 섬 등 이유로 해양성기후를 나타내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및 행위를 파악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피부건강관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20~6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 실태를 살펴본 결과,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는 대중매체를 통해 얻는 여성이 45.1%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은 10.89(13점 만점)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여성은 84.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피부에서는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에 대해 관심을 갖는 여성이 30.4%로 가장 많았다.

둘째,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및 행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피부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여성이 73.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여성은 26.6%로 나타났다. 화장품 구입 시에는 평균이 3.69로 자신의 피부타입을 고려하였고, 기초화장품 선택이 피부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3.96으로 기초화장품 선택이 피부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화장품 부작용은 경험한 적이 없는 여성이 64.2%로, 경험한 적이 여성 35.8%보다 많았으며,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

에는 3.10으로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고 기능과 방법을 그다지 확인하지 않았다. 연령별 여러 종류의 화장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88로 높은 인식을 보였다.

셋째,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행위에 관련된 요인을 살펴본 결과, 피부관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여성은 49.9%를 차지하였으며,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48.3%로 가장 많았다. 피부관리는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하는 여성이 36.0%로 가장 많았고, 주 1회 피부관리를 하는 여성이 29.5%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관리 1회 시에는 1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여성이 39.8%로 가장 많았다. 피부관리를 위해서는 가벼운 마사지를 하는 여성이 48.3%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관리 후 효과에 대해서는 3.56으로 만족하였다. 피부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여성고객 위주 관리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6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미용성형수술은 할 의향이 없는 여성이 52.5%로, 의향이 있는 여성 47.5%보다 많았다. 피부관리실에서 발 관리, 아로마 관리 등과 같은 전문관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3.86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담배는 전혀 피우지 않는 여성이 87.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음주는 한 달에 1회 하는 여성이 26.9%로 가장 많았고, 음주 후에는 피부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인 여성이 32.2%로 가장 많았고, 피부관리를 위해서는 과일류를 선호하는 여성이 36.7%로 가장 많았다. 또한 피부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2.71로 그다지 규칙적으로 취침을 하고 기상하지 않았으며,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비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3.10으로 그다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고, 수영이나 조깅 등의 운동도 2.57로 그다지 하지 않았다.

2. 연구의 시사점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여성들은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 습득방법에 있어서 대중매체 이용률이 가장 높으므로, 올바른 피부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들의 피부건강관리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학력, 피부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들의 특성별로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및 교육 자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여성들은 피부 중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부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인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피부관리제품 사용 또는 자외선차단제 사용을 통한 자외선 침투를 예방하는 피부관리와 체계적인 피부건강관리가 요구된다.

넷째, 여성들은 피부관리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여성고객 위주 관리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가장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여성들이 피부건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피부전문관리실 이용에 대한 욕구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부관리 전문인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전문적 피부관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각 수준에 맞는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전문적 피부관리에 대한 비용부담 조정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섯째, 음주문화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음주를 하고 있었으며, 스트레스의 적절한 해소와 적절한 운동과 같은 피부건강관리 실천 행위가 낮은 실정이므로, 피부건강관리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부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또한 스트레스의 적절한 해소와 음주에 대한 절제, 충분한 휴식 등 피부관리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기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절주, 금연, 운동이 피부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올바른 피부건강관리 행위를 높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피부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 여성들의 피부건강관리 행위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피부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김병우, “피부과학·향장품학”, 유산문화사, 1992.

김봉인, “에스테틱실기”, 화장품신문사, 1996.

김중대, 전성경, 최현숙, “피부관리학”, 고문사, 1994.

윤여성, “신피부관리학”, 가림출판사, 1995.

윤철진, “cosmetik”, 유신문화사.

2. 학위논문

고혜정, “흡연과 피부표면 수분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김봉인, “중년여성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태도와 실천 행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1998.

김복희, “여성의 피부미용관리 지식 및 행위와 관련요인”, 경산대, 1998.

김세정, “부산지역 일부 실버 여성들의 피부관리에 대한 태도 및 인지도”,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나명순,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고객의 심리적 특성”,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명은진, “20,30대 여성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및 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0.

신향미, “피부노화가 여성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과 피부관리선택형태”, 고신대보건, 2002.

이안나, “중년여성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과 행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이영아, “20,30대 직장남성의 피부건강관리지식 및 행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예준정, “일부지역 여성의 피부건강관리 실천 태도와 관련요인”, 경상대학교, 2002.

임혜원, “일부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윤여성, “안면피부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중 노화피부의 대표적인 특징들”,
신피부관리학, 1995.
- 오형석, “대학보건”, 연세대학교, 1968.
- 장원정, “제주도와 수도권 의 피부관리실 현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4.
- 한경운, “화장품 사용에 따른 피부질환에 관한 조사연구”,
원광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한은영, “실버세대의 화장품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4.
, “청소년의 화장품의 사용실태와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5.

3. 간행물 및 참고사이트

- 고혜정, “20대 여대생의 외제화장품에 대한 인식과 피부적합성 비교연구”,
한국미용학회지 2(1), 1996.
- 김신정, 김은숙, “여대생의 건강개념과 건강행위”, 대한간호학회지 27(2), 1997.
- 김인숙, “청주지역 여대생의 미용생활 실태조사”.
서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제 16집, 1998.

II. 국외문헌

- Canizares O.(1960), Geographic dermatology; Mexico and Central
America, Arch Dermatol, 82: pp.870~891.
- Haggerty,R.J.(1977), Changing Lifestyles to Improve Health.
Preventive Medicine, 6: pp.276~289.

부 록

피부건강관리 지식 및 행위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향장미용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나은입니다.

본 설문지는 제주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피부건강관리지식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자료를 얻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 이외에 사용 되지 않으며 앞으로 여러분의 올바른 피부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디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구에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번호에 “V”표를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연령은?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59세 ⑥ 60세 이상

2. 귀하의 학력은?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전문대, 대재포함) ④ 대학원이상

3. 귀하의 직업은?

- ① 학생 ② 서비스업 ③ 사무직 ④ 전문기술직 ⑤ 전업주부
- ⑥ 기타()

4. 귀하의 가정의 월 평균 총소득은 어느 정도 이십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⑤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5. 귀하의 피부건강상태는 어떠한 편입니까? (자가 판단)

- ① 매우 좋은 편이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나쁜 편이다
- ⑤ 매우 나쁜 편이다

6. 귀하의 피부타입은 어디에 속합니까? (자가 판단)

- ① 건성 ② 중성 ③ 지성 ④ 복합성 ⑤ 민감성 ⑥ 모름
- ⑦ 기타()

7. 귀하의 신체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자가 판단)

-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나쁘다
- ⑤ 매우 나쁘다

8. 귀하는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 습득경로는 어디입니까?

- ① 피부과 병원 ② 피부관리실 ③ 가족/친구
- ④ 대중매체(TV,라디오,신문,잡지) ⑤ 기타

■다음은 귀하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문항에 “V”표 해 주십시오.

질문 문항	그렇다	아니다
9.본인의 피부타입에 맞는 화장품 사용이 피부건강을 위해 좋다.		
10.기능성 화장품은 일반화장품에 비해 제품의 효능이 우수하다.		
11.계절에 따라 피부에 변화가 생긴다.		
12.피부 건강을 위한 비타민 등의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한다.		
13.음주, 흡연은 피부 손상에 영향을 미친다.		
14.충분한 영양섭취는 피부를 탄력 있게 한다.		
15.자외선에 피부가 과도하게 노출되면 피부노화현상이 촉진된다.		
16.수면 부족은 피부건조화 및 탄력저하 현상을 초래 하는 등 피부 건강에 유해하다.		
17.스트레스는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		
18.피부관리를 통해 피부의 조기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		
19.정상피부란 수분과 유분이 같은 비율로 있는 상태를 말한다.		
20.운동은 피부건강에 도움이 된다.		
21.규칙적인 생활습관이 피부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귀하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행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번호에 “V” 표를 해 주십시오.

***피부 건강관리 행위 중 화장품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22. 귀하는 피부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모르겠다

23. 귀하는 피부의 어느 부분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기미, 주근깨 등의 피부침착 ② 여드름 ③ 주름 ④ 피부건조 ⑤ 모공
⑥ 피지 과다분비로 인한 피부 번들거림 ⑦ 피부탄력 ⑧ 문제없음
⑨ 기타()

24. 귀하는 평소에 피부건강관리를 위하여 화장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5. 귀하는 화장품 구입 시 자신의 피부타입을 고려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6. 귀하는 기초 화장품 선택이 피부관리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7. 귀하께서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을 체크해주세요. (중복체크)

- ① 스킨 ② 로션 ③ 셰이빙폼(면도시 거품) ④ 영양크림 ⑤ 에센스류
⑥ 자외선차단제 ⑦ 미백화장품 ⑧ 주름개선화장품 ⑨ 기타()

28. 귀하는 화장품 부작용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9. 귀하는 화장품 사용 전에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시고 기능과 방법을 확인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0. 귀하는 연령별(청소년층, 장년층, 노년층)로 여러 종류의 화장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피부 건강관리 행위 중 피부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귀하는 피부 관리를 직접 해 본 경험이나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받아본 경험이 있다 ② 직접 해 본 경험이 있다 ③ 둘 다 없다
- ④ 둘 다 있다

32. 귀하는 피부관리 경험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격이 비싸서 ② 시간이 없어서
- ③ 피부관리를 한다고 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 ④ 부작용이 우려되서 ⑤ 피부관리에 관심이 없어서 ⑥ 기타

33. 귀하가 피부 관리를 위해 이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피부 관리실 ② 피부과 의원 ③ 한의원 ④ 화장품 전문점 ⑤ 집
- ⑥ 기타

34. 귀하가 피부 관리를 하는 이유는?

- ① 젊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②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를 위해
- ③ 모공축소를 위해 ④ 여드름 치료를 위해 ⑤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해
- ⑥ 주름 개선을 위해 ⑦ 기타()

35. 귀하의 피부관리 횟수는?

- ① 주1회 ② 주2회 ③ 한달에 1번 ④ 3개월에 1번 ⑤ 6개월에 1번
- ⑥ 기타

36. 귀하가 피부관리에 드는 1회 비용은 얼마입니까?

- ① 1만원 미만 ②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③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 ④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⑤ 10만원 이상

37. 귀하가 피부 관리를 위해 스스로 행하는 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① 목욕/샤우나 ② 가벼운 마사지 ③ 고가의 기능성화장품 ④ 특수마사지
- ⑤ 네가지 모두

38. 귀하는 피부 관리를 받은 후 효과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한다 ② 만족 한다 ③ 보통 ④ 만족스럽지 않다
- ⑤ 매우 만족스럽지 않다

39. 귀하의 꾸준한 피부 건강관리를 위해 어떤 형태의 피부관리실을 이용하십니까?

(피부관리실을 이용하지 않는 분도 체크해주세요)

- ① 남성전용 관리실 ② 여성고객 위주 관리실
- ③ 남, 녀 비슷하게 이용하는 관리실
- ④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이 이용할 의향이 있다
- ⑤ 어떤 형태로든 이용할 의향이 없다

40. 귀하는 기회가 된다면 젊어 보이기 위한 미용성형수술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41. 귀하는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피부관리실에서 발 관리, 아로마 관리 등과 같은 전문 관리를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부정적이다 ③ 정상 ④ 긍정적이다
- ⑤ 매우 긍정적이다

***피부건강을 위한 행위 중 생활습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42. 귀하는 현재 흡연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약간 피운다 ③ 많이 피운다
- ④ 아주 많이 피운다

42-1. 흡연을 하신다면 귀하의 흡연기간은? (과거의 흡연 경험자도 포함)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 ④ 5년 이상~8년 미만 ⑤ 8년 이상~10년미만 ⑥ 10년 이상~15년 미만
- ⑦ 15년 이상

42-2. 귀하는 흡연을 한 후에 피부 건강을 위해 비타민 섭취에 신경을 쓰나요?

- ① 신경 쓰는 편이다 ② 가끔 신경 쓰는 편이다
- ③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43.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 ① 전혀 마시지 않는다 ② 매일 1주일에 2~3회 ③ 1주일 1회
- ④ 2주에 1회 ⑤ 한달에 1회 기타

43-1. 귀하의 음주량은?

- ① 소주 반병 미만 ② 소주 반병~1병 ③ 소주 2병~3병 ④ 소주4병~5병
- ⑤ 소주 6병~10병 ⑥ 소주 10병 이상

43-2. 귀하는 음주 후 피부건강을 위해 평사시보다 물을 많이 마시나요?

- ① 많이 마시는 편이다 ② 조금 마시는 편이다 ③ 평상시와 똑같다
- ④ 마시지 않는 편이다 ⑤ 모르겠다

44. 귀하가 피부관리를 위하여 특히 선호하는 식품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채소류 ② 육류 ③ 생수 ④ 건강보조식품 ⑤ 과일류

45. 귀하는 평소 피부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취침을 하고 기상을 하시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6.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나요?

- ① 매우 많이 받는다 ② 많이 받는다 ③ 보통이다 ④ 받지 않는다
- ⑤ 전혀 받지 않는다

46-1. 귀하는 스트레스는 피부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음주, 흡연은 제외)을 적극적으로 찾아 스트레스를 풀고자 노력합니까?

- 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대체로 노력한다
- ③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④ 대체로 노력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47. 귀하는 건강을 위해 수영이나 조깅 등의 운동을 하십니까?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게 한다 ⑤ 항상 그렇게 한다

본 설문지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ABSTRACT

A Study on Skin Care Knowledge and Behavior: the case of Jeju

Na-Eun Kim

Major in Cosmetic and Beauty

Graduate School of Distance Learni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kin-care knowledge and behavior of women in the region of Jeju in an effort to help them take care of their skin in a more efficient and scientific manner.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female residents in Jeju who were in their 20s to 60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questionnaires that included three different segments about general characteristics, skin-care knowledge and skin-care behavior,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1.5 program.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to skin care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the women who acquired information on skin care through mass media constituted the largest group(45.1%). They got a mean of 10.89 out of possible 13 points in skin-care knowledge. The majority of them(84.8%) felt the need for skin care, and the largest percentage(30.4%) were intrigued by pigmentation like liver spots or freckles.

Second, concerning connections between skin-care knowledge and behavior, most of them(73.4%) used cosmetics to take care of their skin, and the others who didn't accounted for 26.6%. They took consideration on their skin type when they bought cosmetics(a mean of 3.69), and as to the impact of the choice of basic cosmetics on skin care, they believed that the choice of basic cosmetics was vital for skin care(3.96). The women who didn't undergo any side effects from cosmetics(64.2%) outnumbered those who did(35.8%), and they scarcely read instructions to confirm the function of cosmetics they bought or how to use them before putting them on(3.10). They were highly aware of the necessity of different types of cosmetics for different age groups(3.88).

Third, as for skin care behaviors, 49.9 percent had ever received skin care treatment, and the greatest number of them(48.3%) visited skin care clinics. The largest group(36.0%) took care of their skin to make it clean. The greatest percentage took care of their skin once a week (29.5%), and spent less than 10 thousand won on one time skin care (39.8%). The largest number of them(48.3%) massaged their face lightly, and they were contented with the effect of skin care(3.56). More than half them(63.6%) used skin care clinics for female customers only, and the rate of the women who had an intention to have cosmetic surgery (47.5%) was smaller than that of the women who hadn't(52.5%). They took a positive view of receiving foot care treatment or aroma therapy at skin care clinics(3.86). Most of them(87.5%) were non-smokers, and the largest percentage(26.9%) drank once a month. The greatest number of the women tended to drink water for the sake of post-drinking skin care(32.2%), and preferred fruit as food to improve skin care(36.7%). They rarely turned in or got up on a regular basis(2.71), and didn't make efforts to ease stress, either, though they were under pressure (3.10). Moreover, they didn't get exercise like swimming or jogging(2.57).